

	습득 목표	세부 방법	
1단계: 기반	어휘력 연결어 세부정보	사전 어휘 흐름/ 중요도 5 POINT	전체
2단계: 구조 독해	what how why	정의 구성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예시 인과 논증	전체
3단계: 문제 풀이	대원칙 오답의 3유형	연결하기& 말바꾸기 A~A A→B B→A 민감한 어휘	8번문제 -해결 지문
4단계: 배경지식+	바른 배경지식 다른 배경지식	기본 용어& 원리 실제 적용	소득효과 대체효과 ETC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서 만점자가 크게 줄었고
특히 허리층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서는 단계별로 모두 어려웠기에
사교육 없이도 시간 내에 잘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어려운 글
정보가 많고 복잡한 글
논리적인 문제 풀이까지 요구되었기에
보편적인 방법인 적절하게 질문하면서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위의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잘 충족할 수 있는 LEET 학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 학습은
등장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적 독해,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는 추론적 독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비판적 독해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난이도 정도라면
그게 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데 이 3가지 질문만 잘해서 글을 읽고
선지랑 글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나 2022 수능에서는
정보가 많고 복잡해 '일정한 스키마'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요구되는 어휘와 배경지식은 꽤 어려웠고
문제 풀이도 단순한 연결을 넘은 논리적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래도 버텨?”라고 말하듯 어렵고 많은 정보 지문은 나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지문 이후로 거짓말쟁이문장 오버슈팅 헤겔의 미학까지
배경지식은 어렵고
정보 안에 정보를 넣어 질문 독해를 어렵게 하는 지문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은 헤겔의 변증법 지문처럼 정도가 과하고 문제까지 어려우며
코로나 같은 외부 상황까지 겹쳐서
소위 마그마 수능이 나온 것입니다.

사교육과 leet의 교육 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싶지만
독서의 변별력 상승과
문학의 존재감 하락은 확실한 추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맞도록 도와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명확합니다
스키마
배경지식
논리적 문제 풀이가 그것입니다.

헤겔의 미학처럼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이며
스키마, 배경지식, 논리적 문제 풀이에 최적화된 leet를 추가해서
2022수능 백서를 정리했습니다.

PART1: 세부 정보 어휘 & 연결어

PART2: 구조 독해

PART3: 배경 지식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WHAT?

무엇을 구하고자 했을까? 이 무엇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 봐야한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장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속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능이기에 간명하게 보면

독서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성장과 삶의 변화 이 정도만 읽어 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능과 인과를 정리하면

성찰의 계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삶을 바꾸게 한다

그런데 이 성찰을 위해서는 깊은 사색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

또한 ㉡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앞선 틀과 동일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함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킴

제대로 된 독서를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고 분석해야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선 내용을 종합

내면으로의 여행- 성찰

외부 세계로의 확장- 문제 해결할 힘과 논리 세상의 변화

문제풀이는 글과 연결하고 적절하게 말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다

아래의 3가지 형식이 오답 메인 빌린 틀이다.

- A~A 등의 이항 대립적 개념을 섞거나

- 개념의 포함관계를 바꾸거나

(EX) 만약 '헤겔의 작품이라면 철학적 미학으로 분석'이 참이라면

'철학적 미학으로 분석된다면 헤겔의 미학'은 거짓이고 '철학적 미학으로 분석된다면 헤겔의 미학'일 수 있다.'는 참

- 어휘 조금 바꾸거나

여기에 실전에서는 앞 뒤를 주목하는 것이 좋은 거에 대한 이해 문제

보기에서는 글의 특정한 개념과 연결한 뒤 풀라는 것/ 보거나 할 수 있다는 개연적 선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는 등

팁을 더하면 좋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1) O / 2분단

: 인류의 지혜와 경험과 대화하고 이를 배우며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2) X / 2분단

: 독서는 환상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

3) X/ 3문단

: 독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함

4) O/ 2문단

: 독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

5) O/ 3문단

: 독서는 책에 있는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는 과정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보기문제-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 구체적인 해결 방안

문제 명확, 다른 관점의 책, 통합 결과적으로 다각적 이해 & 관점의 재구성

1) O

: 보기에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이 등장

2) O

: 보기에 통합적 이해와 이를 통한 다각적 심층적 이해가 서술되고 있다

3) O

: 보기에 자신의 관점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한다고 했기에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참이라고 할 수 있다

4) O/ 보기 & 3문단

: 3문단에 단순한 정보 이해를 넘어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 판단하고 분석하라는 내

통이 있으며 보기에서도 정보의 비판적 검토 평가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기에 참이라고 할 수 있다

5) X

: 비판적 판단의 유보가 아니라 여러 관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한다고 했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색, 성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

1) O

: 사색과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2) X

: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였다고 했기에 문학 분야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X

: 독서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기 어렵다.

4) X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5) X

: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숙고와 이어지는 부분이므로 보기에는 타인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HOW?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의 변증법-정반합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계의 근원적 질서에는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이 이념은 정신과 유사한 것) 이념도 정반합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 이념이 세계에 드러나는 것도 정반합에 의거하는 것

이를 전제로 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근원적 질서인 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변증법 논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핵심적 기준점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 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미학에 관한 변증법적 논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선 절대적 진리이자 근원적 질서인 이념을 인식하는 절대 정신을 구분함- 예술 종교 철학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인식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직관 표상 사유

절대적 진리이자 근원적 질서인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 영역인 절대 정신 역시 정반합 즉 변증법적 구조

직관의 외면성(정)- 표상의 내면성(반)- 사유(합)

예술의 객관성(정)- 종교의 주관성(반)- 철학(합)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㉔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인식 수준에서도 중대한 차이- 어떻게 다른가

인식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 그러나 인식 형태는 다름

결론적으로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위계가 형성

예술은 철학 발전 이전이나 절대 정신으로 기능하는 것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㉔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변증법의 매력인 종합이 무엇- 정반 중 하나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범주의 본질적 규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둘이 유기적 조화& 질적으로 성장이 핵심

쉽게 A와 B가 정반의 관계일 때 하나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A와 B의 본질적 규정 중 하나가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A와 B의 본질적 규정이 사라진 상태로 섞인 이상한 C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㉔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㉔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그런데 헤겔의 미학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존재

즉 하나가 이기거나 각 부분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즉 인과와 논증이 등장해야 함

문제는 표상이 이기는 것, 외면성이 사라지고 내면성이 강화, 객관성이 줄어들고 주관성이 강화

그래서 사유와 예술의 본질인 감각적 지각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됨

완전한 주관성 이후에 다시 객관화 즉 다시 예술이 그 역할을 하게 함

사유로만 이해되는 예술 작품이 존재 즉 어떤 예술 작품은 사유이다가 성립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O/ 가-1&3문단 나- 1문단 3문단

: 가나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해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한다. 예술을 종교와 철학 등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에 대해 서술하며 이에 대해서 가와 나 는 각기 다른 답변을 보인다

2) X/ 가- 전체적, 1& 2문단 나-1문단

: 철학적 방법은 쉽게 변증법적 방법이다. 가나 모두 변증법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가는 근원적 질서와 절대적 진리를 밝히는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변증법을 서술하고 있다

3) X/ 나-2&3 문단

: 변증법을 통한 미학의 이해에 부족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인 범인이 아니다

4) X/ 가-2문단 나-3문단

: 가 나 모두 예술 장르 자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학의 측면에서 예술 종교 철학을 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5) X / 가- 2문단 나-

: 가와 나 모두 변증법 자체의 동시적인 변화과정을 살피지 않는다, 다만 이 둘을 활용해서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변증법적 발전을 서술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⑤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1) O / 가- 2& 3문단

: 절대정신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2) O / 가- 1문단

: 근원적 원리인 이념 그 자체도 이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이 두 차원의 논리를 밝히는 일 역시 변증법적이다. 이처럼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대상의 내적 구조이다

3) X / 가-1& 2문단

: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예술 종교 철학이며 이들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즉 직관, 표상 그리고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인식 형식과 연결되어 근원적 원리인 이념을 인식한다

4) O / 가-1 문단

: 근원적 원리인 이념 그 자체도 이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이 두 차원의 논리를 밝히는 일 역시 변증법적이다.

5) O / 가-2문단

: 절대정신의 한 형태인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이라는 인식 내용을 동일하게 갖으나 인식 형식에 있어서 직관, 표상, 사유로 구분된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 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

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직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

표상: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상관 없이 내면에서 심상이 떠오르기

사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1) O/가- 2문단

: 밤하늘의 별을 물질적 대상, 직접 보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자 인식 따라서 직관, 고희의 하늘은 지금 여기 없는 것 그러나 마음 속으로 그것의 상을 떠올림 즉 표상

2) O/가- 2문단

: 미러로 가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를 마음 속의 상으로 떠올림, 판타지 영화의 장면 역시 마찬가지

3) O/가- 2문단

: 묘사된 그림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이 대상의 감각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직관,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은 이성 에 기반한 사유와 관련한 부분

4) X/가- 2문단

: 새로운 개념의 설정은 사유적 개념이 맞음,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 그것의 감각적 형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역시 사유

5) O/가- 2문단

: 선지에 나오는 활동은 실제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고 그러한 대상들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다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정립- 반정립- 종합

㉡ 예술-종교-철학

1) O/가 -1문단 나-2문단

: 우선 가에서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려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나 역시 변증법적 모델로 정립과 반정립은 대립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증법적 구조가 유지되지만 나의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변증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2) O/가-1&2문단/ 나-1&2문단

: 변증법은 기본적으로 수렴적 상향성을 지니며 거의 입장에서 L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나 역시 그와 L을 모두 변증법적 구조로 보고 있기에 수준상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나의 입장에서 L은 진정한 의미의 종합이 아니라 반정립인 주관성과 내면성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X/ 나- 2문단

: 나의 입장에서 '예술-종교-사유'의 관계는 진정한 종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이때는 외면성과 객관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O/ 나- 2문단

: 원래 변증법적 관계인 정립-반정립-종합과 달리 L은 제대로 된 종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첫 조화로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음

5) O/ 가-1문단 나-2문단

: L은 변증법적 종합이 온전하게 성립하며 O는 수렴적 상향성을 찾을 수 있음과 연결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TIP) 보기+ 적절한 것은 할 수 있다 등의 개연적 서술을 우선적으로 확인(정비가 많기에)

가: 몇몇 작품은 지적으로 미성숙해서 미적으로도 진정한 발전을 이루지 못함 이는 몇몇 작품의 경우 지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서술

이를 종합해보면 사유는 미적 이해와 미학을 위한 수단이자 필요조건인 경우 존재로 정리

그리고 이 부분이 철학과 사유에서 주관성과 내면성의 승리를 해결하는 예술 재객관화 단계의 예술과도 연결되는 개념

1) X/ 나-1&2문단

: 내가 제시하는 문제적 구조 중 종합 단계에서는 객관성과 외면성은 매우 약화되고 주관성과 내면성을 강화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문제가 있지만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까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의 중화는 정과 반이 종합될 때 앞선 정과 반의 본질적인 규범이 모조리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가 역시 이러한 중화의 문제와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다.

2) 0/ 나- 3문단

: 이해를 위해서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 예술작품이 있다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개념적 서술이 적절하다.

3) X/ 가-3문단

: 이론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 역시 이런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

4) X/ 나- 문단 3문단

: 답인 2번 선지와 유사한 것 같으나 틀리다. 우선 사유를 필요로 하는 예술작품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인이라는 단정 서술에서 멈춰야 한다. 나에서는 사유는 특정 예술 작품 이해에 필요조건이자 수단이라고 했기에 모든 예술 작품 이해는 사유를 필요로 한다. 혹은 그에 포함된다는 서술 자체에 약간 머뭇거리야 한다. 나에서는 많은 작품이 있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나의 전체 주제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객관성과 외면성이 사라지고 주관성과 내면성이 승리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둘 중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닌 또 둘의 본질적 규정이 아예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유를 필요로 하는 예술 작품의 이해이다

5) X/ 가-2문단

: 예술은 진리를 인식하는 절대 정식의 한 부분으로 이를 내가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어휘 문제 풀이는 ① 어휘 자체의 의미 ② 필요한 문장 성분과 그것의 성질 ③ 조사를 살펴본다.

1) X

: 체계계를 갖추다의 의미이기에 소지는 의미에서 탈락

2) X

: 영역을 의미한다 지칭한다의 의미이기에 포착은 의미에서 탈락

3) 0

: 승리로 마무리되다의 의미로 마무리되다와 귀결은 유사하기에 가능, 승리로 귀결된다는 표현도 어색하지 않음

4) X

: 실질적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으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의미에서 탈락

5) X

: 종합이 성리하지 않았다고 종합이 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같이 보자! 헤겔의 예술 지론 2015년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HOW?**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예술사를 구분-분류 비교 대조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나온 개념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셋을 나누는 기준점을

신이라는 내용과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라고 서술하고 있다

상위: 예술사

기준: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에 따라

하위: 상징-고전-낭만

태고오리엔트- 고대그리스-중세유럽

자연종교-예술종교- 계시종교

끝에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

'상징적'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감각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렴풋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상징적 단계: 절대자 즉 내용을 구체적 실체로 인식X 막연한 욕구만 존재

내용 << 형식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고전적 단계: 내용과 형식의 일치

내용 즉 신을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명확하게 인식

그에 대한 결론으로 삼차원적 인체를 그대로 형상화하는 방식, 장르로는 조각

미의 극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기에 예술 자체는 신성의 직접 구현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HOW?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답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낭만적 단계: 내용이 절대자를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까지

결론적으로 정신적 내면성 > 감각적 외면성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인 장르가 된다

내용이 너무 높아져서 다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이르는 모두 낭만적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 완성- 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 상승- 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WHAT?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

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순수 미학적 차원: 출발 완성 하강

정신사적 차원: 출발 상승 완성

이런 것의 이중적 기능

우선 추의 인지와 개념적인 현재 등 그 당시와 미래의 새로운 것을 설명하고 예측함

동시에 절대자의 제시를 예술에서 철학으로 이관시킴

1.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1) X / 문단

: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부터 우선은 막혀야 한다. 문단에서는 예술사를 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했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편적 정신사 및 발전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순수 정신을 향한 점증적인 발전법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글은 이런 방식의 단계 대응이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술이 내용과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2) X / 문단

: 예술의 단계적 변천을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거한다. 이들은 또한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 조각 시문학 등의 장르적 구분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은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지 않다

3) O / 문단

: 헤겔은 예술을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 글에 따르면 보편적인 정신사와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술에는 이러한 설명이 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용법이 아닌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이자 종교 등의 다른 분류와도 연결된다

4) X/ 1&5 문단

: 예술의 내용은 즉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다. 이 절대자가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즉 예술미의 측면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가 중요하다.

5) X/ 1문단&5문단

: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정신사와 발전법칙에 따라 볼 때 낭만적 단계로 갈수록 더 발전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작품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2.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1) 0/1문단

: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며 태고 오리엔트의 거대한 건축이 전형적인 예술이다.

2) 0/ 1문단

: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서사시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 중 하나이다.

3) X/ 1문단

: 중세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고대 그리스 이후 시대에 등장한 회화 시문학 서사시 등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4) 0/ 1문단

: 우선 근대이며 예술의 형식도 음악이기에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5) 0/ 1문단

: 현대라는 시대적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전형적 예술이라고 하기 어렵다. 건축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1) X/ 5문단

: 가장 아름다운지 여부는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고전적 단계이다

2) X/ 5문단

: 가장 아름다운지 여부는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고전적 단계이다

3) O/ 5문단

: 가장 아름다운지 여부는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고전적 단계이다.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해 볼 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단계이다. 둘은 일치하지 않기에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존재할 수가 없다

4) X/ 5문단

: 가장 아름다운지 여부는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고전적 단계이다. 가장 덜 지성적인 예술은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해 볼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상징적 단계이다

5) X/ 5문단

: 가장 아름다운지 여부는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순수 미학적 측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고전적 단계이다. 가장 추한 예술의 경우에는 지성의 차원에서 낭만적 단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4. 밑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적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 X/ 1문단

: 위 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사례를 잘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첫 문단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논증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

2) X/ 5문단

: 헤겔의 예술론은 추가 미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당대의 논의는 물론 매우 지성화된 현제이자 그 당시의 미래를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3) X/ 1&5문단

: 정신사적 차원 즉 보편적 정신사와 그 발전법칙에 의거한 논의는 물론 지역개념을 포함한 문명사적 차원, 종교사적 차원, 장르적 차원 모두를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모순이 등장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4) X/ 122&3&4문단

: 예술사의 시대 구분은 보편적 정신사와 그 발전법칙에 의거하며 이러한 구분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를 통해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장르적 구분, 문명사적 차원, 종교적 차원까지도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장르적 차원은 내용의 발전과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라는 논리적 개념에 의거한 정합성을 보인다

5) O/ 문단

: 문명사적 개념과 연결할 때 중세 유럽을 최후의 단계이자 가장 발전한 단계로 놓음으로써 이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고 열등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축통화: 결제 수단으로 통용 환율 결정에 기준 통용은 일반적으로 두루 사용

문제 해결의 논증 구조로 글을 읽기

어떻게 달러화가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인과와 논증 즉 HOW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X, 달러 공급 중단 시 세계 경제 위축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 지속, 준비 자산 신뢰도 하락 결국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국제 유동성은 보편적인 통용력 즉 기축 통화의 필요조건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 금환본위제에서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것

즉 달러와 금이 널리 국제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환율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는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이 결정되고 고정된 다른 화폐들도 이 환율에 따라서 자동결정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 되었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누적 → 달러가 미국밖으로 많이 빠져나감 →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는 평가 절하, 달러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환율을 낮추는 평가 절상

EX) 35불=금 금을 어떻게 적게 줄 수 있을까? 70불=금으로 바꾸자 즉 달러의 평가 절하

기준이 되는 달러의 평가 절하는 곧 다른 통화의 평가 절상 압력을 만든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기에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평가 절상이 이뤄지고 환율도 하락하는 압력이 가해지는 것

환율이 하락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의 개선을 통한 달러의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금 상환 부담이 감소

결국 70불=금이나 50엔= 35불 이런 식으로 달러화의 평가 절하와 다른 국가 통화의 평가 절상이 금 부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35불이 금으로 정해진 체제에서는 다른 국가 통화의 평가 절상이 요구되었으나 어려움

유지 안 될 것,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빨리 바꾸고자 하나 거부

체제의 붕괴가 결과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 기축 통화 역할은 유지하는 결과 도출

CF)배경지식

환율의 표시-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1달러= 1000원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이제는 1000원이 0.5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1달러 = 2000원

0.5달러 = 1000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이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 절하이며 기축통화인 달러는 평가 절상된 것이다.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1) O / 4문단

: 거래 비용 감소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 X

: 트리핀은 브레턴우즈체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했을 뿐 이후 세계경제 위축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 아주 적극적인 독해를 하려면 금태환규정이 사라졌기에 경상수지 적자를 더 감당할 수도 있고 이 덕분에 국제 유동성 공급은 더 원활하게 이뤄졌을 수도 있다.

3) O / 2문단

: 브레턴우즈체제 하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태환의무를 지낸다

4) O / 2문단

: 브레턴우즈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금에 달러화가 추가되어 국제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5) O / 183문단

: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라인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던 것이 시작이다. 이로 인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하락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1) 0/ 3문단

: 닉슨쇼크 이후 금태환의무에서 벗어나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2) 0/ 3문단

: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 준비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통화의 평가 절상이 필요했기에 이로 인해 그 당시의 고정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평가 절상을 예측해 투기적 수요가 몰렸다

3) 0/ 1&2문단

: 달러화의 공급으로 인한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의 문제에서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다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를 지키면서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다

4) 0/ 1문단

: 달러화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이 부족할 때의 경제 위축의 문제와 과도 공급으로 인한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

5) X/ 3문단

: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마르크화라는 우선 금 구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활용해 마르크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것으로 금을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마르크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마르크화의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금태환 의무는 바꾸지 않는다면 동일한 마르크화를 가지고 이전 보다 더 많은 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미 한 일

1) X/ 2문단

: 금본위체제는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이는 ${}_3C_2$ 즉 3가지이다. 이는 금에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와 동일하다.

2) X/ 2문단

: 교차 환율의 경우에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다른 두 국가의 환율인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동일하다

3) X/ 3문단

: 기축 통화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국가 수가 하나가 늘어나면 ${}^3C_2=3$, ${}^4C_2=6$ 로 환율의 가짓수는 3개가 늘어난다

4) X/ 2문단

: 7의 경우에는 각 통화별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면 이때는 3개이다. 이것이 브레튼우즈체제가 금본위제로 변화하면 기축통화가 된 달러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국가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교차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 한 개로 줄어든다

5) 0/2&3문단

: 2의 경우 교차환율의 개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한 개 2의 경우 전체 환율 가짓수는 세 국가를 짝지은 세 개로 전자가 후자 보다 적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TIP) 보기 가능한 것이라는 서술-개연적 서술을 먼저 확인하기

기축 통화국 A- 금리 인상, 통화 공급 감소, 기축통화 평가 절상, 다른 국가 평가 절하, 다른 국가들의 환율 상승 이를 해결하고자 개입,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하락 B가 C보다 더 크게 평가절상

1) X/ 1문단

: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축 통화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외국 자본이 몰려드는 상황이기에 이때 신뢰도 하락은 적절하지 않다,

2) X/ 1문단

: 달러의 평가 절하와 외국 화폐의 평가 절상은 B국가의 환율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적절하고 이는 기축 통화국으로

외국 자본이 몰리는 것을 막으나 국제 유동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경상수지의 적자폭을 줄임으로써 국제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외국 자본이 달러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 경제 지문을 읽을 때 장기간의 인과관계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라면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달러의 필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 이는 달러의 평가 절상, 원화의 평가 절하, 환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고 이는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를 유도, 이렇게 되면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정반대의 프로세스가 또 발생. 이처럼 경제는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이 모든 과정을 고민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에만 주목하기

3) X/ 보기(3문단)

: 보기만을 가지고 내용일치로 문제를 풀 수 있다. B C 국가 모두 환율이 하락했으나 B 국가의 하락의 정도가 더 크다 따라서 B국가에 대한 C국가의 환율은 상승했다

4) O/ 보기& 3문단

: 글에 따르면 기축 통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환율 하락은 그 국가 통화의 평가 절상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B C 국가 모두 환율을 하락시켰기에 평가 절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절상의 정도는 B 국가가 더 적기에 B 국가에 대한 C국가의 환율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B국에 대해서 C국가의 통화는 평가 절하되었고 경상수지는 개선되었다.

5) X/ 보기&3문단

: 기축 통화국에 외국자본이 몰리면서 B C 국가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고 기축 통화의 평가 절상이 이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문단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축 통화의 평가 절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기와 글에 나온 대로 B와 C 국가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평가 절상이 필요하다.

같이 보자! 유사한 스키마- 정의/ 과학 기술의 인과관계/ 문제 해결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였다.

칼로릭: 열의 실체, 질량은 없음,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인과관계 즉 how가 등장할 것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지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열기관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

열효율 = 한 일 / 흡수한 열, 흡수한 열이 일정하면 한 일이 많을수록 열효율이 높아짐

열효율은 흡수한 열이 얼마나 일하는가와 연결, 고온과 저온의 차이에만 의존

한편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 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 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한편- 새로운 화제, 줄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

여기서는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이 등장 에너지 \Rightarrow 열

앞에서 열효율은 흡수한 열이 얼마나 일로 바뀌는지 이야기 열 \Rightarrow 일

우선 순서를 바꿨고 일은 모든 에너지라 유사한 것으로 생각 실제 모든 에너지의 일부

실제 뒤에서 열의 일당량: 1kcal을 위해 필요한 일의 양

등가성, 둘이 상호전환될 때 열 + 일 = 일정 k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일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법칙에 ㉠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줄의 열을 얻기 위한 일, 에너지의 양, 등가성과 칼로릭 이론에서 흡수한 열 대비 얼마나 일하나를 이제 종합해 설명

물의 이론대로라면 흡수한 열에너지는 일에너지와 증가성을 가지며 흡수한 열에너지가 일에너지로 바뀌는 것 그러나 칼로릭 이론에서 흡수한 열은 전체가 다 방출되기에 바뀔 수 있는 일에너지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는데 어찌 일을 계속한다면 에너지의 총합은 계속 줄어든다고 해석도 가능하고 반대로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나 계속 생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클라우지우스의 개념도 등장

자연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경험적 깨달음

일이 열로 바뀔 때와 달리 열을 일로 바꿀 때는 한 일 / 흡수한 열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자! 열역학 배경지식- 한화케미 아티클

열역학: 열과 에너지를 물체에 가하면 물체의 온도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법칙: A와 B가 접촉하여 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 둘은 열적 평형상태, 알짜 열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음

EX) 5L 100도의 물과 10L의 100도의 물을 섞어도 열에너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열에너지의 양은 후자가 더 많음

1법칙: 고립계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 고립계는 주변과 물질 및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게, 에너지의 형태는 달라져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

: $\Delta U = \Delta Q - \Delta W$, U는 내부 에너지, Q는 계의 외부에서 내부로 가해진 열에너지, W는 계의 내부에서 외부로 가한 일 에너지

외부에서 열에너지가 증가하면 그만큼 일을 하거나 그래도 않으면 계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것

EX) 주전자에 열을 가하면, 내부에너지가 증가, 불안정 내부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자 즉 다시 낮추고자 들쭉 즉 계의 외부로 일을 하게 된다.

2법칙: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에너지의 총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유용한 상태로 되돌리는 가역적인 반응은 불가능한 것

CF) 엔트로피와 같이 알아갈 개념인 엔탈피

엔탈피는 내부에너지 + PV(압력*부피) 엔탈피는 내부에너지에 부피 변화에 의한 일을 더한 것 즉 내부에너지에 공간에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 내부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 이는 외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의미.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정하더라도 압력이 일정하다 즉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때 쓸 수 있는 개념이 엔탈피 부피가 일정하다면 엔탈피의 변화량은 열에너지의 변화량과 동일한 값

CF) 자연스러운 반응과 자발적 반응의 자유에너지

자유 에너지: 에너지 중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 $G = H - TS$, G : 깃스 자유에너지, H : 엔탈피 TS : 온도와 엔트로피의 곱으로 무질서한 에너지, 깃스자유에너지는 등온 등압조건에서 사용되며 등압 조건에서는 엔탈피를 사용. 이는 자발적 변화를 확인하는 개념, 앞선 열역학 제 2법칙에 근거할 때 깃스 자유에너지가 감소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자발적 반응

EX) 석탄이 타면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자유도가 증가함, 외부로 열을 방출하며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 엔탈피 감소 따라서 자유에너지는 감소하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EX) 수증기 액화의 경우 기체가 고체가 되며 엔트로피가 감소,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엔탈피도 감소 엔탈피 감소의 정도가 엔트로피 감소 정도보다 커야 자연스러운 반응, 고립계가 아니기에 엔트로피도 감소할 수 있는 것,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를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에너지를 자연스러운 반응의 판단 조건으로 설정하기

3법칙: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워질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은 0에 가까움, 절대 0도의 불가능성 온도가 낮아질수록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감소하는 폭은 특정한 온도에서 0이 된다. 그게 절대온도 0K 이 불가능, 완벽한 질서 상태

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 ② 수력 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 ③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 ④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 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1) X/ 2문단

: 열기관은 흡수한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이고 이때 흡수한 열 대비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가 열기관의 열효율 개념이다

2) X/ 2문단

: 수력 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높이 차이에만 의존한다

3) X/ 1문단

: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쇠구슬로 칼로릭이 이동했기에 쇠구슬이 뜨거워지는 것이며 이때 칼로릭은 질량이 없는 입자로 질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4) X/ 1문단

: 칼로릭 이론에서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5) O/ 4문단

: 칼로릭 이론을 틀렸다고 가정함으로써 경험적 인식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서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것이 유지되었다

2. 윗글로 볼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 라는 점
- ② 열의 실체가 칼로리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③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 ④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
- ⑥: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카르노의 이론이 양립할 수 없는 것

TIP) 이런 문제 풀이는 앞 뒤에 주목해야 한다.

열을 전부 방출하면서 일을 하고 이것은 결과 일의 증가성과 어긋난다고 함

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열에너지가 없는데 일을 계속하는 것

결국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함은 하는 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1) X/ 3문단

: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도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가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합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2) O/ 3& 4문단

: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고 결과 일의 증가성을 갖는데 열이 전부 빠져나갔기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이 계속 이뤄지는 것이다

3) X/ 4&5문단

: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부분과 관련이 없는 서술이다

4) X/ 4문단

: 이러한 가정에서 칼로리 이론 특히 열기관의 열효율이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받침, 그러나 이것은 줄의 이론과 양립할 수 없어 재검토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됨에도 수용되는 부분을 서술한다

5) X/ 4문단

: 4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줄이 이론과 반대됨에서 수용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일 뿐이다.

3.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A)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B)을 측정하여 B/A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①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하다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②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③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 ④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⑤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TIP)보기와 적절한 것이기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개연적 서술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명백한 기준점이 존재함

5문단에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 열은 일로 다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

즉 흡수한 열 대비 한 일의 양은 줄이 구한 열을 얻기 위한 일의 양보다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쉽게 5번임을 알 수 있다

4. 윗글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 :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
- ② ㉡ :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 ③ ㉢ :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④ ㉣ :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 ⑤ ㉤ :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어휘력 문제의 풀이 과정

- ① 어휘 자체의 의미를 확인
- ②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의미, 성질을 확인
- ③ 조사를 확인

1) X/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 부른다는 말한다 명명한다는 의미. 따라서 웃음을 유도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음

2) X/ 문제를 기반을 두고 다루다

: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 역시 다른 또한 문제와 기계로 앞선 목적어의 성질이 다르다,

3) X/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

: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는 것을 의미하며 물은 액체 파위가 내리거나 넘쳐서 떨어지는 의미이다. 이를 모를 수 있기에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의미와 성질을 살펴보면 기계와 물로 차이가 존재

4) O/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난다

: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사 또한 상식과 보존법칙으로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의 성질과 의미도 유사, 조사도 예로 유사함

5) X/ 현상이 생길수도

: 어휘 자체의 의미는 선지는 어떤 상태와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본문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의미이다. 또한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의 의미와 성질도 다름

같이 보자! 배경지식의 필요성- EITC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비해 EITC는 근로자의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로 장려 세제한?

소득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인) (과) 근로의 장려& 소득을 지원(과)- 이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

vs 기초 생활보호제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고 각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설명할 것

이렇게 글을 읽어갈 큰 구조를 파악하면 끝

어려운 글이기에 쉽게 이미지로 정리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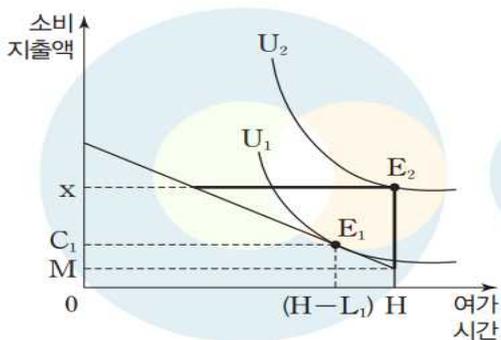
먼저 저소득 근로자 A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가-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소비를 위해 C만큼 지출하는 A의 재산 소득은 M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A의 시간당 임금을 W, 노동시간을 L이라고 하면 근로 소득은 WL이 된다. 소득 이상으로 소비 지출을 할 수는 없으므로 A는 $C \leq M + WL$ 이라는 예산 제약에 놓이게 된다. 또한 A의 총 가용 시간이 H라면, A의 여가 시간은 총 가용 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제외한 $(H-L)$ 이 된다. 이때 A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여가-소비 모형이 무엇? 이 이론의 가정

쓸 수 있는 총 소비 $C < M + WL (= M + W(H-여가))$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 최소는 재산소득

최대는 재산+ $W * H$ (총가용시간) 이제 이것을 활용한 결론과 인과관계가 등장할 것



<그림>

<그림>의 E1은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할 때 A의 선택을 나타낸 것이다. E1을 지나는 곡선U1

은 A의 효용 수준을 나타낸 무차별 곡선으로, 무차별 곡선이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즉 A는 주어진 예산 제약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H-L1)과 소비 지출액C1을 선택하며 U1의 효용을 얻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L1이 된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 티 즉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액을 이은 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확인

노동시간은 L1

이제 A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인 x 가 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즉 소득이 기초 생활비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 준다. 이에 따라 기초 생활비인 x 보다 소득이 작은 구간에서는 A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이 수평선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ominus A$ 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0으로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로 작용한다

기초 생활비인 x 가 되도록 보조금의 지급

그 결과로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이 수평선으로 변화와 실질임금이 0으로 하락한 효과발생

이러한 예산 제약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일으켜 A의 선택을 변화시킨다. 먼저 대체 효과란 여가와 소비 간에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한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총 가용 시간 중 여가를 제외한 시간인 노동 시간은 감소한다

경제의 과정과 원리, 인과관계가 이어진다

대체효과: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선택이 변화하는 것, 특히 여기서는 여가와 소비의 상대적인 가치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곧 여가의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는 것

이로 인해 여가 시간은 늘고 소비는 감소

이로 인해 노동 시간은 감소함

CF) 매우 중요한 독해의 원리

여기서는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지 낮아지는 것인지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가의 기회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가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소비 지출액이 작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여가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의미로도 읽어낼 수 있다. 여가가 주는 효용은 동일한데 가격이 낮아진 것이라면 여가의 순효용은 더 높아졌다고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소득 지원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소

득효과란 경제 주체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되는 효과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즉 기초 생활보호제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극단적인 경우(E2) A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A의 근로 욕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소득효과: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가 노동시간은 감소

대체효과로 실질임금이 아닌 효과, 여가 늘고 소비가 감소, 노동시간의 감소

소득효과로 여가 늘고 소비가 증가, 노동시간의 감소

보조금지급이 근로 욕구의 감소를 결과, 노동시간의 감소를 결과,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의 인과관계를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작용과 달리 EITC는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EITC는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3개의 소득 구간으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때 소득이 점증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평탄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점감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줄인다.

이제 EITC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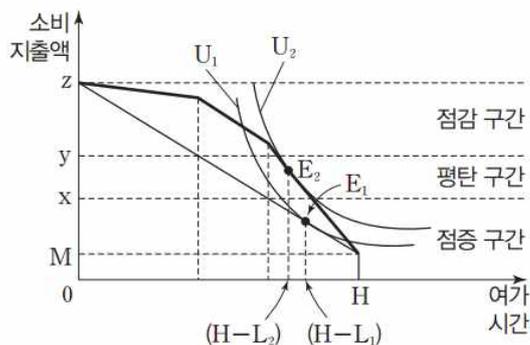
우선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분류& 비교, 대조

점증: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보조금

평탄은 일정

점감은: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줄인다

실제 두에서의 그래프



PART4 비거정지식& 이미지화/ 예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액 = $z - w(H-L) = M + wL$, w : 시간당 임금, L : 노동 시간, H : 가용 시간

여기에 EITC를 추가하는 것 평탄은 그냥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고 중간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하고 마지막은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면서 노동을 하나도 안할 때는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바꾸기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 소비 지출액 = $3000 - 100(24-L)$ 이라고 가정해보자

소비 지출액이 1500 이하의 경우 50L의 보조금 제시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 최소 금액인 M 은 보장하면서 시간당 임금만 높이기 $600 + 150L$

그다음 소비 지출액이 $1500 < 2700$ 의 경우 300만원의 보조금, 이때는 상수 값을 더해주는 것, $900 + 100L$

마지막으로 2700이상의 경우에는 점차 보조금을 줄여가는 것, $1800 + 50L$

보조금의 식은 $1200 - 50L = 1800 + 50L - 600 - 100L$

다른 질문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래프를 보면 결국 최고 소득에서 기존 소득을 4배 값의 일정비율만큼이 보조금이 된다

$(3000 - \text{소득}) * 2$

$(3000 - 600 - 100L) * 2 = (2400 - 100L) * 2$

EITC하에서 A가 점증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A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A가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A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 시간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반면 소득효과는 여가 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인다. 보조금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A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EITC로 인한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크다면 A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모델하에서 점증구간, 노동시간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효과 즉 여가의 기회비용, 가격이 비싸진 것.

대체효과로 인해서 여가는 줄고 소비 지출액은 높아진다

여기에 소득효과가 있기에 여가 소비가 늘고 노동 시간이 감소

소득 < 대체효과시 노동 시간의 증가가 가능 = 근로 욕구의 자극

CF) 배경지식

무차별곡선과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로와 세로축에 무엇이 오는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대체효과라는 가로와 세로에 오는 대상들의 상대적 가격, 즉 기회비용이 변화하면서 조합이 달라지는 것, 만약

어떤 대상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면, 가격이 싸지면 이 대상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

소득효과라는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가 있다, 돈을 많이 벌면 못살 때 먹었던 건 이제는 안먹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대체효과라는 경우에는 상대적 가치, 기회비용과 연결된다. 만약 Y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는 줄고 X재화에 대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햄버거 콜라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때 콜라에 대한 소비는 줄고 햄버거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효과라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 즉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관련된다. 정상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열등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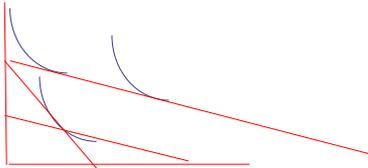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두 재화의 예산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

이 글과 원래 정의와 적절하게 연결되는 기펜재를 분석하자.

xy 두 재화만 있는 경우에 y 재화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즉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면 y재화에 대한 소비량은 늘어난다. 이는 x재의 상대적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기에 x재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예산선을 볼 때 예산선 자체를 위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y재 가격이, 기회비용이 낮아진 것은 x재화의 상대적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즉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주로 x와 y 모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아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고려해 가격효과라고도 한다



그런데 기펜재의 경우에는 열등재 중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펜재 역시 가격, 기회비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그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 효과로 인해서 수요 감소의 정도가 대체효과 정도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후에 한계대체율과 한계효용을 추가한 기출을 같이 보면 좋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 있는 이론에 근거하여 다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경제 제도의 시간적 변화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증하고 있다
- ③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각각의 경제 제도가 경제 주체의 자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경제적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개념이 경제 주체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양상을 파

악하고 있다

⑤ 특정 경제 변수의 변화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서로 충돌할 때 이러한 상충이 유발하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 X/ 글 전체

: 본문에는 권위 있는 이론이 등장하지 않는다

2) X/ 글 전체

: 경제 제도의 시간적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3) O/ 2&5&8 문단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가 실행된 L 상충을 가정하고 각각의 경제제도가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등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4) X/ 3&5&6 문단

: 무차별곡선과 소득효과 대체효과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양상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5) X/ 8문단

: 보조금을 통한 시간당 임금 혹은 소득의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상충적인 결과를 내는지 서술하고 있지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득효과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은 모두 증가한다

②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변화는 대체효과만 일으킬 뿐 소득 효과는 일으키지 않는다

③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추구한다

④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상충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가용 시간이라는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점을 선택한다.

㉡ 여가-소비 모형

1) X/ 5문단

: 소득 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여가 시간과 소비는 증가하나 이로 인해 가용시간에서 여가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2) X/ 4&5문단

: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변화는 여가의 기회비용 변화를 통해 여가와 소비에 변화를 준다. 동시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소득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3) X/ 5문단

: 여가의 기회 비용이 상승한 경우에는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 것이며 이로 인해 여가의 감소 소비와 노동시간의 증가가 발생한다.

4) X/ 4문단부터 끝까지

: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라는 EITC제도 하 점층 구간에서는 상충되는 것이 맞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EITC제도하 점층부분이나 평탄부분에서는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O/ 3문단

: 3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는 소득과 가용시간의 조합 중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지점을 선택한다

3.㉠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A의 총 가용 시간이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②A의 시간당 임금은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하기 때문이다

③A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④여가와 소비 간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A의 선호가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변화했기 때문이다.

⑤A는 자신이 추가로 벌어들인 근로 소득만큼 보조금이 줄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변화하는 효과

1) X/ 2문단

: 우선 총 가용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떠올려도 참이 되기 어려운 선지이다

2) X/ 3&4문단

: 시간당 임금은 W로 일정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에서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에 노동을 포기하더라도 소비 지출과 소득이 변화하지 않는 시간당 임금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3) X/ 3&4문단

: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지급액은 EITC 하 평탄 구간에 적합한 설명이다.

4) X/ 4&5문단

: 우선 어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적 가치가 변화하고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선지는 상대적 가치에 대한 선호가 변화했다고 했기에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 가치가 변화했다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변화하는 효과의 원인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변화했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서 여가가 늘고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O/ 4&5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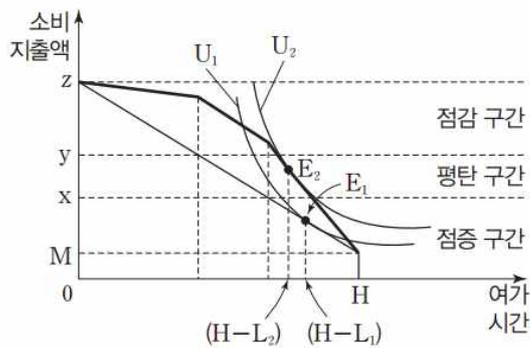
: 보조금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 이상의 소비 지출을 보이는 사람은 노동시간을 늘려도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변화해도 소득은 변화하지 않는 시간당 임금이 0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가

변화했기에 대체효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작은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된다.

4.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B국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소득이 z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소득이 x 이하인 점증 구간의 경우 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지급액을 늘리며, 소득이 x 초과 y 이하인 평탄 구간의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y 초과 z 이하인 점감 구간의 경우 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아래 그림은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b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이다



(단, B국 정부는 여가- 소비 모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효과를 예측하며, 근로 장려세제 도입에 따라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 선택이 아래 그림과 같이 E1에서 E2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①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이후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하겠군
- ②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이후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효용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하겠군
- ③ 근로장려세제가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하겠군
- ④ 평탄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생활보호 제도와 동일할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하겠군.
- ⑤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노동 시간 증감 여부는 점증 구간에서의 노동 시간 증가와 평탄 및 점감 구간에서의 노동 시간 감소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b국 정부는 예상하겠군

1) 0 / 7&8문단 보기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이후에 점증 구간에서 근로자의 여가-소비 지점은 E1에서 E2로 이동한다. 이는 여가 시간은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이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강력했다는 의미이다.

2) 0 / 3문단

: 점증구간을 보면 원점에서 더 멀어진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 이는 근로자의 효용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0 / 7&8문단 보기

: 새로운 지점에서는 여가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늘어났기에 이는 여가를 줄이는 대체효과가 여가를 늘리는 소득효과보다 컸다는 의미이다

4) X/ 4문단부터 끝까지

: 평탄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를 통해서 여가시간과 소비 지출의 증가를 유도한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대체효과를 통해서 여가 시간의 증가를 유도하기에 이때는 여가 시간의 증가와 노동 시간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5) O/ 7&8문단 보기

: 보기에 따르면 점증 구간에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강력해서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평탄과 점감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따라서 점감과 평탄구간의 감소분과 점증구간의 증가분을 비교해야 전체 노동 공급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F) 추가 지식

실제 EITC의 경우 확실하게 노동 시간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는 현재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과 대체효과를 비교해야 하지만 이 점증 구간의 처음인 노동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여가를 늘릴 수가 없기에 여가를 늘리는 소득효과가 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여가 시간을 줄이는 대체효과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결국 글은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원리

인과관계 HOW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 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무조건 이미지화!

영상을 만드는 과정원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문제점의 원인과 문제점을 서술

곡률- 상의 왜곡(중심부 볼록, 말수록 휘어짐)- 해결:왜곡 계수 파악을 통한 왜곡 모델 설정

기울어짐 등 외부 변수- 왜곡-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그것의 위치 변화 파악을 통한 해결

뒤 보름을 읽을 때 가능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해야 한다.

전방을 바라보는 카메라가 계획보다 대각선 아래쪽을 바라본다면 격자판은 회전해있고 원래 있어야 하는 격자판의 위치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외부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왜곡이 끝났다면 이제 원근 효과의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과 원리 인과관계도 등장할 것

㉠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모든 점과 격자판의 점들 사이의 대응

격자판의 격자의 크기 등도 멀리 있으면 작아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

따라서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와 동일하도록

이 격자의 점을 조정하고 대응되는 영상의 점들도 조정 영상도 조정

이런 과정도 이미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격자 모양의 기본적인 영상을 우선 만들고 이 영상의 왜곡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좋다

실제로 선생님은 왜곡이 조정된 영상으로는

원근감 있는 기차길 형태의 격자를 생각 실제로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를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1) X/ 1문단

: 좌우전후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영상을 종합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듯한 영상을 만든다

2) X/ 2문단

: 외부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한 것이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왜곡변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3) X/ 4문단

: 우선 왜곡을 보정한 후에 원근효과를 제거하는 2차원의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영상들을 합성해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

4) O/ 2문단

: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어지는 것은 렌즈에 의한 상에 왜곡이다. 이는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X/ 3&4문단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카메라가 3차원의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한다고 하고 이때의 원근효과를 제거한 영상을 합성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의 영상을 만들게 된다.

15.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 촬영된 영상

㉣ 왜곡이 보정된 영상

㉡ 위에서 내려다 본 영상

1) X/ 2문단

: 왜곡 보정은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부분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을 보정하는 것이다, 큰 시야각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2) O/ 2& 4문단

: 왜곡 보정을 통해서 중심부에서 멀어질 때 휘어지는 것이나 카메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영상 모두 원근효과가 남아있기에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3) X/ 2문단

: 왜곡 보정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을 보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렌즈 자체의 곡률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글에서는 곡률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선지에서는 곡률 변화라고 표현했기에 이 부분에서도 멈추고 주의해야 한다.

4) X/ 2&4문단

: 실제로 격자판과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하는 것은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을 보정한 것으로 아직 원근효과가 보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㉔이라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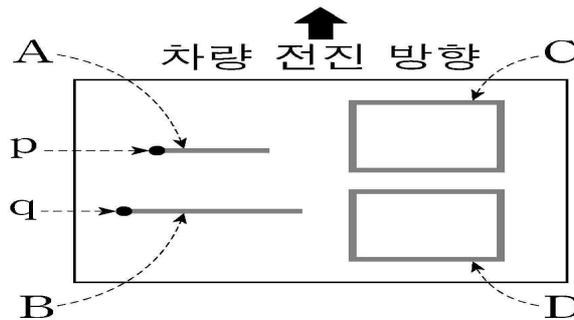
5) X/ 2문단

: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렌즈의 곡률로 인해서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격자판이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TIP)보기가 적절한 것- 개연적 서술부터 우선적으로 보기, 정보가 많을 수 있으니까!

1) X/ 4문단

: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이기에 C의 뒷면은 카메라에서 더 멀리 떨어져있다. 따라서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C의 뒷면이 더 작다. 이러한 사다리꼴을 격자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해 보정하면 보기의 그림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2) X/ 4문단

: C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카메라에서 D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시점 변환 전의 영상 즉 원근효과가 남아 있는 영상에서는 D가 C보다 더 큰 크기로 아래에 위치한다.

3) X/ 4문단

: P와 q 간의 대응관계가 아니라 영상의 점인 P와 q와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정함으로써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4) O/ 4문단

: A는 차량 진행방향에 위치해서 카메라에서 보다 멀리 위치하기에 시점 변환 전에는 더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점 변환을 위해서 격자의 모양과 크기로 고려해 보정함으로써 더 커지게 된다.

5) X/ 4문단

: P 같은 영상의 점을 격자판 위의 점과 연결하는 것이며 영상의 점 하나가 아니라 영상의 점들은 격자의 모양과 격자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함으로써 A와 같은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17. 문맥상 ㉔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는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뻡하다.

㉔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같은 물리적 대상을 통과할 때

어휘력 문제의 풀이 과정

- ① 어휘 자체의 의미를 확인
- ②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의미, 성질을 확인
- ③ 조사를 확인

1) O

: 통과해서 오다는 의미 동일 또한 교차로 렌즈 등의 물질적 대상이라는 공통적인 대상이 앞에 온다

2) X

: 감정이라는 비물질적 대상, 넘어서다는 의미

3) X

: 정도라는 시간 즉 비물질적 대상, 넘다는 의미

4) X

: 어느정도 물질적 대상이 아님, 넘다는 의미

5) X

: 고비라는 비물질적 대상, 넘기다는 의미

CF) 실제 사전 표기를 활용한 문제 풀이

지나다 동

|

1.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

(예) 봄이 지나 여름이 온다

||

「..에」

1. 어떤 한도나 정도가 벗어나거나 넘다

(예) 우유의 유통 기한이 지났는지 잘 보고 사 오너라.

(예) 상식에 지나는 말을 삼가세요

|||

「...을」

1. 어디를 거쳐 가거나 오거나 하다

(예) 전철은 한강 위를 막 지나고 있었다

2.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

(예)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3. 어떤 일을 그냥 넘겨 버리다

(예) 그녀의 말을 무심결에 지나 버렸다

4.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

(예) 이미 역겨움의 상태를 지나

어휘력 문제의 풀이 과정

① 어휘 자체의 의미를 확인

②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의미, 성질을 확인

③ 조사를 확인

	서정 자아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서사 자아 갈등	극/교술 자아 갈등 자아 깨달음
개념어+	시상전개 어조 운율 심상 표현상의 특징+	보여주기 말하기 요약적 장면	희곡 시나리오 용어
문제 풀이	개연적 해석 내용 일치 자체의 모순 보기와 반대 알 수가 없다		
고전	고전 서정 어휘	고전 서사 서술	고전 교술 형식

문학은 독서에 비해 단순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핵심에는 딱 2가지가 존재한다

큰 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

세부 정보를 파악해서 문제 풀이로 이어갈 수 있는 문학 개념어가 그것이다

시는 서정 문학의 현실태로 세계의 자아화라는 이야기를 한다.

피는 꽃을 보면서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떠올리고 투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정적 '자아'가

자신을 둘러싼 '대상'과 '대상의 상황' 혹은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정서'를 투영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자, 대상과 상황, 정서라는 틀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형성되는 양상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의미 형성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한 기출에 따르면

첫째는 세계에 자신의 독특한 인식을 투영하는 것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산수유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자신의 정서와 경험을 투영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이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일반적인 법칙을 보고 자신의 이별도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드리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그릇처럼 화자와 대상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외부 대상에 친화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산수간 바휘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뜻모를 남들은 웃는다 하건마는 같은 구절에서 화자와 대상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소원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구조가 있다

이제 이러한 독해가 끝났다면

정확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과거와 현재 사건의 병치” 같은 문학 개념어 정리가 필요하다.

문학 개념어는

①정의 ②실제 선지 ③판단 기준 ④설명 ⑤기출 ⑥ 복습

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학 역시 기본은 내용일치이다.

글과 다르거나 등장하지 않는 말은 틀리다.

이번 수능에서 “국운을 회복한 영웅”이라는 선지는

국운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기에 옳지 않은 선지가 된다.

다만 문학의 해석 문제는 엄밀한 내용일치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이다

(EX) 몽혼에 섞기었다- 몽혼에 희미해져 간다, 몽혼에 섞여있다 둘 다로 해석 가능,
전자는 입신양명의 꿈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이고, 후자는 아직 의미있게 남아있는 것,
무조건 전자로만 생각해서 섞이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보면 안된다
실제 선지였던 미련은 전자든 후자든 가능한 해석이다.

여기에 보기 문제에 맞춰서

보기와 반대

보기에서 알 수 없는 내용

문장 자체의 모순은 거부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CF) 독서의 문제풀이 원리& 오답의 유형

연결해서 말바꾸기

A~A섞기

A라면 B를 B라면 A로 바꾸기(개연 확정)

어휘의 민감한 변화

PART1: 큰 독해(화자 대상& 상황 정서/ 사건 갈등)

PART2: 문학 개념어(심상 어조 운율 표현방식 시상전개/ 서술자 요약 장면)

(가)

[A][**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좀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B][**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C][**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있**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D][**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늪은이는 **늪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화자 대상상황 정서: 시적 화자는 지금 밤에 산속에 있고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고 있다. 그 묵화 안에는 따뜻한 봄도 있지만 쓸쓸한 고향의 이미지가 계절의 흐름과 함께 등장한다.

: 강물조차 얼어붙는 매우 부정적인 고향의 상황이 나타난다.

문학개념어

: 직유법, 시간의 경과, 시각적 심상, 대조, 의인법

(나)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화자 대상상황 정서: 시적 화자는 지금 장계를 등지고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산을 예찬하고 있다. 산에 화자는 겸허함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있다.

문학개념어

: 의문형 종결, 대조, 의인법, 돈호법,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역설법, 시각적 후각적 상상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낱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테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낱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

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 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화자 대상상항 정서: 화자는 지금 온갖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꽃과 풀들을 사람들이 손 가는 대로 거리낌 없이 베고 있다. 화자는 이에 탄식을 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노출하고 있다. 꽃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그 조화는 균일하며 하늘은 사사오입 없이 낳았다 그러나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원함과 친함이 귀함과 천함이 공교함과 졸렬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학개념어

: 시가적 후가적 심상, 설의법의문형 종결, 영탄법, 영탄적 어조, 대조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 X

: 가에서는 초겨울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계절이 겨울이 되면서 노인들은 말타들만 하고 있고 강물조차 얼어붙는 현실을 제시했을 뿐이다

2) X

: 나에서는 사람과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앞날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산의 덕을 배우고 간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회의라는 태도는 대상과 태도가 모두 -일 때 참인 개념이다. 여기서는 부정적 대상은 존재하나 산의 덕을 배우고 산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등장하기에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없다.

3) O

: 다에서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서술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고 있기 때문 인간의 자의적 기준으로 자연물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4) X

: 가 다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5) X

: 나는 산과 교감하며 산과 교감하며 살겠다고 했기에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자연물과의 교감과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없으며 다의 경우에는 문단에 자연을 즐기고 교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 자연물에 대한 교감이라는 선지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자연물과의 교감은 자연물을 즐길 때 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물 같은 대상을 완상하고 예찬하는 등 긍정 대상에 긍정 태도를 보일 때 참인 선지라고 할 수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 0

: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고향의 분위기도 짐이라는 표현이나 3연 이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쓸쓸하고 부정적이며 고향을 떠올리는 곳도 소략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러한 공간의 분위기는 A부분의 시어가 형성하고 있다

2) 0

: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봄 모습이다, 보리밭 말뚝이 나뭇잎 같은 시어를 통해서 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에서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3) X

: 우선 시각적인 이미지의 정경이 드러나기는 한다,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려가는 나무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이 아니며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4) 0

: 따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라간다는 것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꿈처럼 어린 농이 복귀를 꿈꾸는 것에서 선지의 뒷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5) 0

: 계절적 배경은 초겨울에서 한겨울로 변화하고 감물조차 떨어붙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1) 0/3&4행

: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2) X

: 산에 고향하고 너그르우며 보듬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대상으로 이야기하며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0/ 9-11행

: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다고 하고 있으며 화자가 풀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서 묻힌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0/ 12행

: 산을 고향이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리움의 정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0/ 7-8행

: 화자는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산 속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하는 역설적인 표현도 한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으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1) X

: 글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쓰임새를 통해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이 되기 어렵다.

2) X

: 기본적으로 조화는 균일하다고 하고 있으며 인간이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소원함도 친함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는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3) X

: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고 했으며 하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4) O

: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물은 조화가 균일한 대상이자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친함과 소원함은 인간의 주관적 기준임을 이야기한다

5) X

: 우선 사사로움과 소원함과 친함이 있다는 것은 이항대립적인 관계이다.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소원함과 친함이 있는 것이다.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22. **묵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③ (가)에서 ‘묵화’에 ‘좀이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1) O

: 묵화는 묵으로 그린 그림으로 어두운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박쥐 날개도 그 자체로 어둠의 이미지이며 황혼과 저녁을 묻고온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가 고향을 떠돌리는 곳의 어둡고 외로운 이미지와 고향의 어두운 이미지가 드러난다. 나에서는 화자는 복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러한 대상을 예찬하며 산의 품에 대한 긍정과 그리움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황혼을 묻혀 오는 것도 황혼이 묻히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

: 문학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참이라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석은 하나의 해석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월선현심육경가의 해석 문제였다.

2) X

: 가의 묵화는 좀먹은 대상이자 강물조차 멀어붙은 시대 현실의 모습도 가지고 있으므로 황혼 같은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읽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나에서 복창을 통해 보는 산은 본받아 함께 살고자 하는 대상이자 긍정적 대상으로 이것을 정량적 상황에 대응시키지 어렵다.

3) X

: 묵화의 종이 찢었다는 것 자체가 그려진 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복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창을 오늘 연 것은 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줄 뿐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본래 사랑한다고 했기에 변화는 정반대의 서술이다.

4) X

: 분절된 이미지라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 즉 내용 일치 상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나의 경우에 산을 예찬하고 지향하고 있으며 앞의 선지에도 등장한 것처럼 산과 교감하고 있다. 또한 산 속에서도 산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5) X

: 모래꽃은 묵화의 그림조각의 일부로 가시내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복창을 통해서 본 보옥은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 0

: 화자가 있는 공간에 저녁이 오는 것을 막지 내려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때 호롱불이 켜진다고 서술한다, 이를 통해서 황혼이 점차 사라지고 어둠에 잠기며 호롱불을 키는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준다.

2) 0

: 젊은이들이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각지고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뗏목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다

3) 0

: 장거리는 사고 파는 공간으로 이태리산에 따라서 인심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세속 공간의 분위기가 환기된다.

4) X

: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선지이지만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5) 0

: 글에서 소이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인간에 의해 하찮은 대상으로 쓰이고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같이 보자! 문학개념어 개념&공부방법

의인

헤아릴 모방할 擬 사람 人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 즉 인격적 요소를 부여

주로 의인화하여로 등장

<실제 선지>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고3 2006 43번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고3 18수능 201번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606 311번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0 x) 고3 2021 수능

<판단의 기준점>

인격적 요소- 생각, 사람나 할 수 있는 행동, '정서'

사람만의 신체- 손 등등

너, 님 등의 사람을 부르는 표현

<설명>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모방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인 의인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모방하는 것 즉 인격적 요소를 부여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생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서가 있다.

마지막의 정서는 감정이입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는 강물”과 같은 표현에서 의인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감정이입은 의인화를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외에도 손 등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서술하는 것이다

ex) 꽃의 손은

너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ex) 꽃아 너는 어찌해서 아직도

여기서 어떠한 부분 즉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는 활유법과 의인법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어떠한가에

의지가 드러나는 행위로 바꾸기도 한다.

의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 의지는 사람만이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격적 요소로 설명한다

많은 설명에서 생명력과 의지는 그 자체로 의인화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라도 연결된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동물이 밥을 먹고자 하는 것도 밥을 먹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등

어떠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기에 의인화 활유에 대한 구분은 우선 넘겨 두자

<기출OX>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부디 내말 잊지 말고 위궤터 불리 이즈기를 월항촌 계궤 갈 제 적막 공구에 던져진 듯 적

막 공구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 님 그리 차마 못 살네라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밥비 가웁는 길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606 31번 (O X)

(가) 뉘든뉘든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귀비구비로
사들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러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초벌로
어둠 속에 내려 떨어진 색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기 귀음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튼기는
한 포기 향기로운 사릿수를 사양하라.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벼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륙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르빈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0 x) 03 2021 수능

(가) 선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 밤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 는 강 건너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갈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게지삽어 짐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머은 벌레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먼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조상 : 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 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운 꽃꽂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고3 18수능 201번(0 x)

<반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묘사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인 ()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 즉 ()을 부여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 사람만이 할 수 있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 있다.

마지막의 정서는 ()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 같은 표현에서 의인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 등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를 서술하는 것이다

()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ex) 꽃아 ()는 어찌해서 아직도

여기서 애매한 부분 즉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이다

이는 ()과 의인법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애매하게

()가 드러나는 행위로 바꾸기도 한다.

의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고 이 의지는 사람만이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격적 요소로 설명한다

많은 설명에서 ()는 그 자체로 의인화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라도 연결된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동물이 밥을 먹고자 하는 것도 밥을 먹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등
어떠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기에 의인화 활용에 대한 구분은 우선 ()

비교해서 밥을 먹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가 아닌 본능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많은 설명에서 생명력과 의지는 그 자체로 의인화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제 대한 반박 역시 가능하며 위의 설명 또한 순환논리적이 성격이 강하기에 의지와 의인 활용은 그냥 고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

<답지>

-반박

의인법, 인격적 요소, 생각, 행위, 정서, 감정어입, EX로 우는 강물, 슬픈 강물, 기쁜 강물, 웃는 꽃, 손, 너, 너,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행위, 활용법.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마음, 생명력과 의지, 넘겨 두기

-OX

O- 명확하게 울고 간다고 했기에 의인화된 자연물이 맞으며 이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고 부드러운 명령 혹은 부탁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임에게 알려달라는 것이기에 적절한 선지이다.

X- 너포 청자와 의인화는 고려할 내용이 좀 있다. 가장 명확하게는 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청자를 설정하고 반복
적으로 부르는 경우, 명령과 청유형을 쓰는 경우에 의인화된 청자를 대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명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에 이 정도만 기억하기다

위의 지문에서는 셋째아라고 우선 동호법을 사용하고 있고 명령형으로 부르고 있기에 이를 통해 의인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사슴과 투게는 한
포기 향기로운 사릿살을 사야해라"라는 구절의 경우에는 명령형을 통해서 청자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과
는 다르게 동호법 등 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이 대상들이 청자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박도 가능하다.

나의 경우에는 나무를 인격화하고 있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나무를 청자로 해서 나무에게 화자의 소망을 전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 우선 이것 자체를 의인으로 볼 것인가 여부와 상관 없이 활용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래의 경우에는 강을 건너가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뭍살을 계집에게 다가가려하는 노래는 모래불에 타서 죽어도 다시 강건너가는 의지를 보여준다. 나의 경우
에는 모비가 살아 남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고 곳곳이 불을 건너지는 부분에서도 의지와 생명력 부여를 느
낄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인격적 요소에는 사람만이 하는 행위, 정서, 생각, 신체, 호칭 등이며 의인법은 이를 부여함

로서 인간의 의지, 정서, 생각 등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만의 행동이라는 것이 애매하기에 이를 의지가 개입되는 행위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 역시 반론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고 의지와 생명력 같은 선지는 각각 의지가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넘어가면 된다.

쉬어가기, 문제 이외제기& 문학 풀이의 기본을 살펴보기

시의 문제 풀이는 내용 일치가 기본, 특징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넘어가야 한다

(반론)

원문을 살펴보면 “뭍 잇을 계집애와 짐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진”

따라서 시는 시적 대상인 노래가 뭍 잇을 계집애와 짐조차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선술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과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시 전체의 분위기와도 더 적절한 해석이 된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짐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된다.

우선 원문을 고려할 때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뭍 잇을 계집애 짐조차 없다기에”로 나왔으며 이는 “뭍 잇을 계집애와 짐조차 없다기에”와 “뭍 잇을 계집애가 짐조차 없다기에”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로 해석한다면 22번에 두 번째 선지인 “노래”가 시를 풍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짐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이라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이 된다.

+ 참고할 수 있는 문학 개념어- 설의법

설의

배플 設 의심할 疑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의문형 종결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 기법

강조하기

<실제 선지>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고3 2109 38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3 2109 43번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리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고3 20수능 22번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번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06 28번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3 1909 16번

<판단의 기준점>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반어의문문

얼마나 좋을까- 감탄의문문, 영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하나- 갈 곳이 없다, 명확한 답변, 영탄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냐 -혼잣말, 나름의 생각, 영탄

<설명>

설의는 명확한 정의에 비해서 그 범위를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의문형으로 통해서 강조하는 수사법이라는 정의를 볼 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설명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질문 자체에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경우이며 반어과 영탄이 여기에 들어간다.

뒤의 설명에서는 반어와 영탄이 드러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래 의문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수사의문문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이 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반어, 금지와 권고, 명령, 감탄 등의 의미를 지니며 몰라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평에 원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 1 나 다르랴-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적 표현

설의의 경우에는 수사 의문문 중 반어 감탄과 확실하게 연결되고

다른 부분도 넓게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지 권고 명령은 수사 의문문이나 설의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영탄 중에서는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 셈이냐 같은 혼잣말의 하소연을 볼 때

누구나 아는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궁금해서 묻지 않는 것'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명백한 반어, 명백한 감탄, 명백한 답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영탄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잣말의 하소연 등을 조금만 추가하자

<기출OX>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ㅎ니

그 모든 늑들은 울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뜻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싹 굵을 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보라보니

그리던 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흐라

말씀도 우물도 아녀도 몰내 묘하 흐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 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뚝더라

아마도 얹힌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세라 <제4수>

내 생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큰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알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득트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흐 시도다 <제5수>

강산이 묘타 흐 들 내 분(分)으로 누먼느냐

넉은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히을 일이 없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03 2109 38번 (0 x)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집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획득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03 2109 43번 (0 x)

동역 두던 밭과 크나큰 너분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흔 빗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흥자스라
별근 게 여물고 높은 듕기 슬저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맏슬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편 가노머라
살여를 긴 몰래에 밤벌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있고

호두포* 먼 귀비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돛든빅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끄는 당식으로다

경(景)도 도키니와 생리(生理)라 리로오라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리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고3 20수능 22번(O X)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성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든,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뵈는데 어찌 귀하여 나의 아름다운 남군을 배앳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였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리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한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할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다면 남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B]

"남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남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같은 귀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덕에 들은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남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시어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물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살게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34번 (O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리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리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0 x)

이곡은 이퇴피오 화악에 춘만거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아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깃더리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번(0 x)

(가)성평명에 원하나니 다만 충혼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드리야

마음에 하고저 해야 십재항항하노라 <제1수>

계교 이렇더니 공명이 늙었어라

부급동남하야 여공불공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나 못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르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절경운

명철군자는 이룰사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 1 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 수지복 병들고 늙은 나를

누라서 회보미향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제16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되 어찌 다르리

일도모 다르지 아니커니 아득 덴들 어디리 <제 17수>

십재항항: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터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리지 않으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향: 뛰어난 능력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가

-권문호, 한계십팔곡-

(나)진주 장터 생어물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을 염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을염매야 을염매

달빛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꿀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을 염매의 마음은 어디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3 1909 16번(0 x)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는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교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함이며.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06 28번 (0 x)

<반란>

설의는 명확한 정의에 비해서 그 범위를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라는 정의를 볼 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이 범위가 설명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질문 자체에 ()이 있는 경우이며 ()와 ()이 여기에 들어간다.

뒤의 설명에서는 ()이 드러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래 의문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이 있다

수사의문문의 경우에는 ()등의 의미를 지니며 몰라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평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하면 금수 1 나 다르리야-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적 표현

설의의 경우에는 수사 의문문 중 반어 감탄과 확실하게 연결되고

다른 부분도 넓게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은 수사 의문문이나 설의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경

우가 많지 않다.

영탄 중에서는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짝아볼 셈이냐 같은 ()을 볼 때
누구나 아는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영탄이라고 할 수 있는 () 등을 조금만 추가하자

<정답>

-반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을 의문형 종결을 통해서 강조하는 수사법, 명확한 답변, 반어, 영탄, 반어와 영탄, 수사의문문, 반어 감탄 명령 금지 권고, 명령 금지 권고, 혼잣말의 하소연, 궁금해서 묻지 않는 것, 명백한 반어, 명백한 감탄, 명백한 답변이 있는 경우, 혼잣말의 하소연

-OX

X-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라는 구절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는 한다. 또한 도다 같은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기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문과 그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X- 우선이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의문형 종결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영은 죽어있다는 화자의 안타까운 인식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문형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잣말의 하소연과 영탄을 설의적 의문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궁금해서 묻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X- 생리가 리롭지 않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은 맞으나 생명의 고단함이라는 내용이 틀려서 거짓이다.

O- 우선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남궁을 배해아가 위세로써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겠는가 어찌 알리오 어이 될고 등의 의문형 종결이 드러나 있으며 알 수가 없다 등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는 설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찌 구태여 배해아가는가와 어이 될고 등의 하소연은 그 자체로는 화자가 답을 모르고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적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뒤 부분에서도 의문형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X- 우선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내적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찰과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정한다고 할 수 없다.

0- 설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형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어떻게”라고 묻고 있기에 이는 참이다

0- 가에는 설의가 나에는 의문형 종결이 등장하며 이를 볼 때 둘 다 의문형 어미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다르리아 하오리라 어찌 다르리 하느뇨 등은 모두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으며 나에서의 한이던가 등의 표현은 모두 의문형 종결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 설의적 의문으로도 그냥 의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의문형 종결로 보는 것이 좋다. 설의법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설의법으로 보는 것이다.

0- 우선 가에는 설의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의적 설의법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다만 1연과 5연 이외에도 각연의 종결부분에서 설의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 시험에 등장하고 다른 해설지에도 등장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인 반어인 1연과 5연이다, 다만 ‘각 연의 종결어미는 명확한 답변을 가진 설의법’이라는 설명에 맞춰 234연의 종결도 설의법으로 보면 결국 혼잣말의 하소연과 반어 등에 맞춰서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화자의 생각이 강조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개념은 기본적으로 범위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의, 직유, 의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대구 등이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모든 문학개념을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길어져 기존 문학개념어 자료로 갈음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허탈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كن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하던 이야기를 푹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통무늬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오.”

김달채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사건과 갈등: 우산 케이스를 무전기처럼 여겨지게 하는 행위를 반복,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과 대립, 머리지 않자 돌이 죽은 상태로 돌아가

서술상의 특징: 행동 나열, 요약적 서술, 외양 묘사, 장면전시, 비유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별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1) X

: 중심인물은 김달채이고 그는 그가 지낸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X

: 중략 전후나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공간 이동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응 통한 인물의 내면 변화도 또 회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3) X

: 인물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적 사건의 병렬 배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4) O

: 김달채는 무전기 모양의 우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소설에서는 이를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김달채의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는 선지는 참임을 알 수 있다.

5) X

: 김달채가 상대를 달리하여 별이는 행동들이 서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이해관계, 가치관, 생각, 처지 등의 상충되는 인물 간의 갈등이나 인물의 내적 갈등 모두 고조되지 않는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죤의 물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1) X

: 중략 앞 부분에서 김달채는 청명한 가을날에도 우산을 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X

: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 모양의 우산이었다. 기본적인 내용일치에서 틀린 것이다.

3) O

: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여감 때문에 그는 형인들과는 달리 시위 현장을 향해 달려 갔다

4) X

: 김달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는 서술을 볼 때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 들 뒤로 물러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5) X

: 김달채는 위협에 굴복하고 돌아서고 있기에 뒷장차에 끌려갔다는 서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⑤ '사복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1) O

: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우산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보고 우산 이상의 것 즉 무 전기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줄 때 효과가 크다는 서술에서 케이스의 생김새로 무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O

: 대동고 드러내기 보다는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는 것 즉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3) O

: 우선 무전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뒤에서 청년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무전기에 익숙한 사람의 예가 등장한다

4) O

: 글에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지고 겁을 집어먹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5) X

: 청년은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

의 우산을 무전기로 속이려는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 경찰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1) O

: 글에서 인물의 행위가 나열되고 있으며 이는 각계각층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 보기에 따르면 권력관계를 의식한다

2) O

: 우산을 무전기로 인식하자 인물이 낮은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는 보기의 힘의 우열 관계와 연결된다.

3) O

: 김달채는 외양에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행위에 더 몰입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무전기에 어울리는 외양을 하고 그 행위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데 김달채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참이다.

4) O

: 김달채가 사복 경찰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내고 있다 이는 앞선 승인의 경험에 기반한다.

5) X

: 문학 문제의 기본인 내용일치에서 틀린 선지이다.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득권을 지켜낸다는 것도 틀리다. 다만 그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는 타산적 행위라고는 할 수 있다.

: 타산적 이해타산적이라는 어휘가 등장했기에 정리하면 타산적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따져 헤아리는 적이며 이해타산적은 이익과 손해를 따져 헤아리는 의미이다.

같이 보자!- 요약적 제시, 장면제시

행동과 대화, 행동의 나열&묘사& 짧은 시간/ 행동의 나열&묘사& 긴 시간, 긴 시간 요약적 사건

사건 제시에 있어서 앞이 장면제시 뒤가 요약적 제시이다

다만 중간에 행동의 나열 등에는 장면 제시의 성격이 있다.

장면제시

<실제 선지>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고3 2006 16번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고3 1906 43번

<판단의 기준점>

대화와 행동

행동의 묘사와 나열& 시간이 짧음

<설명>

사건은 일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인물이 벌이는 일이나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약적 제시와 장면 제시로 나뉘는데

장면제시는 드라마처럼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화와 행동이 핵심입니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제시하기에 서술의 속도에 맞춰서 장면이 제시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나열하는 것도 장면제시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는 손을 들었다, 그는 그 손으로 그 집을 가리켰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그 무리의 사람 중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멍하니 서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처럼 행위가 나열되고 자세하게 묘사된다면 마찬가지로 서술의 속도와 사건의 속도가 유사한 장면제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만약 “아내는 어제 하루 종일 집 앞길의 끝에서 다른 끝을 걸어다닌 모양이다. 그녀는 파란 대문 앞을 몇 번이고 어슬렁거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보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자 그때 파란 대문 안으로 신발을 휩 넘긴 모양이다.”

여기서는 행동의 묘사가 느껴지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경과했기에 요약적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의 나열과 묘사는 장면 제시의 성격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행동이라면 요약적 서술에 더 가깝다고 보자.

이처럼 (

)에 더 가깝다고 보자.

<기출 OX>

[A]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곡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잠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징징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댁은 어둠에 문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B] “자아! 자아! 목 죽이겠니?”

손이 땀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뽕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시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불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기세요!”

울부짖으며 뽕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딱 멈춘다. 돌아본다. 흠뻑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고3 2006 16번

(O X)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 하였다.

“설마 안 볼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 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슬라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나고 불면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 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 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살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 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도플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 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리밖에 남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

실 또한 성공하지 않았다.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 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뿔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 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짝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소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 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거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지의 먹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거트랑 이 사이로 내보이던 밝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불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

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타갈 것이었다. 그녀의 질척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 양귀자, 한계령-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고3 1906 43번 (0 x)

<반란>

사건은 ()를 말한다
이러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 나누는데
장면제시는 드라마처럼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핵심입니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제시하기에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하는 것도 장면제시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는 손을 들었다, 그는 그 손으로 그 집을 가리켰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그 무리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달려기 시작했다. 몇몇은 멍하니 서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처럼 행위가

나열되고 자세하게 묘사된다면 마찬가지로 서술의 속도와 사건의 속도가 유사한 장면제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

만약 “아내는 어제 하루 종일 집 앞길의 끝에서 다른 끝을 걸다닌 모양이다. 그녀는 파란 대문 앞을 몇 번이고 어슬렁거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보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자 그때 파란 대문 안으로 신발을 훑 넘긴 모양이다.”

여기서는 행동의 묘사가 느껴지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경과했기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 더 가깝다고 보자.

<정답>

-반반

일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인물이 벌이는 일이나 하는 행위

요약적 제시와 장면 제시

대화와 행동

서술의 속도에 맞추어서 장면이 제시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나열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요약적 추측

행위의 나열과 묘사는 장면 제시의 성격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행동이라면 요약적 서술

-OX

O- 장면제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을 진행한다면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행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묘사적 성격이 강하고 장면 제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는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집에서는 인적이기 난다. 읍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얇게 울리고, 햇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X-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이러한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보 꺾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A][“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치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뒀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B][“인명이오면 재천이웁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훗훗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꺾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훘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 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뒸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붙들라.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 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큰 틀 독해: 태보와 왕의 갈등이 외적 갈등이 여기서의 핵심, 태보의 압송과 죽음, 임금의 순행이 드러난다

서술상의 특징: 직유법, 정서 말하기, 장면 제시, 요약적 제시, 서술자의 개입

CF) 외적 갈등은 인물의 생각 가치관 이해관계 처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일방적인 적대시의 경우에도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역시 인물의 이해관계 가치관 생각 처지 등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고전이기에 어려운 단어에 대한 정리

학발: 학의 깃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

의관: 남자의 옷과 같, 정식으로 갖추 입은 옷차림

기사: 사실을 기록함, 굶주려 죽음 여기서는 후자

수조: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군의신충: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성스러움

고전이기에 인물 간의 호칭& 관계

태보(한림) ↔ 상(임금)

부인

민중전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1) X

: 태보가 스스로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달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상이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릴 뿐이다.

2) O

: 부인은 꿈에서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 밤자 심어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어 방으로 들어갔으며 보니 학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를 깨닫고 놀라서 꿈을 깬다

3) X

: 대감은 태보가 죽자 즉시 과천으로 향했으며 초종례를 극진히 한 후에 채दान으로 엄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냈다

4) X

: 상의 노래를 듣고 심한하여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했을 뿐 노래의 내용을 묻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미 노래를 들었기에 노래의 내용은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5) X

: 형조 판서는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감 직계로 올렸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1) X

: 한곳에서 임금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노래를 듣고만 있다 이를 볼 때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부에서 박태보는 상의 명령으로 감해 있으니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조벽관과 장안 백성이 그를 보기 위해 귀찮처럼 모여들고 있기에 임금이 권위가 실현된 공간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2) O

: 상이 귀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도는 진도로 정배하라 했다. 민 중전은 외관에 내쳤다는 노래를 볼 때 선지는 적절

하다.

3) 0

: 이화춘은 꿈에서 깨어난 부인이 시뭇모 당하에 즉 대형 아래에 문안차로 나간 곳이자, 하인이 한림 즉 태보의 편지를 전달하는 곳이다

4) 0

: 태보의 편지에 따르면 라천의 관에서 신경과 심회가 울적해 구천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태보가 죽은 공간이며 이를 들은 대감이 바로 향하는 공간이다

5) 0

: 십산공목은 아이들이 부른 노래 속에 나오는 곳으로, 백성들이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고 한 곳이고 성내 성외는 임금 순행하는 곳이다, 임금이 있지 않는 공간과 임금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비되고 임금을 데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온 길에 어휘를 추가적으로 보면 애연하다는 슬픈 듯하다 겸연쩍다는 속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1) X

: “우리도 역시 한 탓이도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은 확인할 수 없다. A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민망하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태보의 막중한 충을 예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X

: 앞 부분은 맞으나 태보가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삶을 도모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3) 0

: 죽게 된 태보 앞에서 민망함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의 막중한 충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직함은 B에서 등장하는 태보의 다짐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X

: 제원들 간의 갈등과 그리 인한 심리적 상처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 B에서 가족과 만나는 것은 참이다

5) X

: 태보의 후회는 드러나지 않으며 B에서도 후회는 드러나지 않는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② 국운을 갇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1) O

: 꿈에서 내 무죄하여 탕당한 청천이 감동하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전고 충신을 따라 항성에 구경간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적 명분에 있어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알 수 있다.

2) O

: 국운을 갇지 못하고 죽는다는 구절이 편지에 제시되며 결국 민 중전을 내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었기에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했음을 알 수 있다.

3) O

: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내용이 편지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 O

: 저 달은 밝지만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임금과 밝은 달을 대비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X

: 문학 문제의 기본인 내용 일치에서 틀린 선지이다.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우는 국운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일부만 추론할 수 있다. 장안 백성이 누 아니 낙후하리오와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같은 구절을 통해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다.

선술자의 개입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30인칭 선술자가 마치 1인칭 선술자인 것처럼 개입함

<실제 선지>

독자를 언급하여 선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선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심리를 드러낸다 고3 15092형 38번

선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고2 14예비2형 31번

선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고3 08수능 27번

선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3 0506 53번

[B]에서 놀부를 '놀부 님'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선술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고3 15062형 40번

편지집적 논평을 통해서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선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고3 16수능b형

선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있다 고3 2006 32번

독자를 언급하여 선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판단의 기준점>

원칙: 해석, 평가, 일반화, 자의식적 서술

드러나는 형태: 인물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서술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가치평가(추측, 당위, 원칙+희상)

ex) 주로 어찌 등의 부사어와 설의적 표현이 자주 등장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감정 노출 (님, 아이고 훈향아)

선술의 흐름 끊기- 차설 등

요약 예고

말걸기& 판소리계 문체(보소)

<설명>

원칙과 드러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그 핵심은 주관성의 노출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의 생각이며 제 3자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는 그 만의 목소리가 핵심이다.

선술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원래는 드러나지 않았던 선술자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며

이때 30인칭 선술자는 마치 1인칭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한다

문본 등을 참고할 때 작가개입이 형성되는 원칙은 해석, 평가, 일반화, 자의식적 서술이며

구체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서술 EX) 서동주는 원래 성격이 착해서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가치평가(추측, 당위, 원치+희상) EX) 장관이더라, 심봉사 그러면 안되니라
ex) 주로 어찌 등의 부사어와 설의적 표현이 자주 등장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감정 노출 (놈, 아이고 춘향아) EX) 돌보 놈의 거동 좀 보소

서술의 흐름 끊기 EX) 차설

요약과 예고 EX) 이제 심봉사의 왕궁생활과 심봉사 찾기가 시작될 것인데

말걸기& 판소리계 문체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EX) 다음 화를 보시라, 거동 보소, 하것다요

우선 주관적인 목소리가 느껴진다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단순한 사건 서술과 인물의 내면 서술은 작가 개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은 세상이 그를 반기는 듯하더라” 같은 구절이다.

이 구절이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일한다면 작가 개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구름 모이듯 모였다는 단순히 묘사적 서술로 보는 것이 좋다.

CF)

주관적인 판단과 감상은 선경후정과 관련해서도 살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경후정에서는 주관적인 판단과 감상이 명확하더라도 이것이 묘사적인 부분과 섞이면 선경으로 보는 설명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항조가에서 “정답게 노는데” 같은 구절이다.

만약 소설에서 정답더라로 끝나고 그것이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면 서술자의 가치판단이 드러난

주관적 감상으로 보고 작가개입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출 OX>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흥이 어찌니가, 이미 한 달로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진 짐이 낙함을 하
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벨라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O X)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하랴? 어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라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 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닥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니 서동지 닥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리되,

“잠깐 보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면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보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닥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른기를 장끼라고도 혹 깡이라고도 하는데, 귀덕을 찾아 금일 만나기를 구원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지 않았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항한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경의 이름은 높이 들었나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항공 가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문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곱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녀년지 못해 오늘날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라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죽을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한 새가 있으되 주머벚에 흉공단 두루마기, 흉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쌀아 두었는가?”

장끼가 험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독독지 아니하거든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고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빚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헌납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여 임금을 어렵게 하리도다. 나

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건네어 만석이라도 추심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르다”

딱부리 우승며 나와 헝사춘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누 집을 찾아오시니?”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석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나? 나는 동지춘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를 쥐란 놈이 꼴로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 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를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끌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곤분을 레하여 찾으니 그중에 나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작가 미상, 잠계전-

선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행동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있다 곧 2006 32번 (0 X)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흥이 어찌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진 짐이 낙함을 하 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벨라테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0 X)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0 X)

독자를 언급하여 선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0 X)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0 X)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3 19수능 23번 (0 X)

<빈칸>

원칙과 드러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그 핵심은 ()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의 생각이며 제 3자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는 그 만의 목소리가 핵심이다.

선술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원래는 ()

이때 3인칭 선술자는 마치 ()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한다

논문 등을 참고할 때 작가개입이 형성되는 원칙은 ()이며

구체적으로

() EX) 서동주는 원래 성격이 착해서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가치평가() EX) ()
ex) 주로 () 등의 부사어와 설의적 표현이 자주 등장
인물과 상황에 대한 () 노출 (놈, 아이고 훈장아) EX) 놀보 놈의 거동 좀 보소
서술의 흐름 끊기 EX) ()
요약과 예고 EX) 이제 심성의 왕궁생활과 심봉사 찾기가 시작될 것인데
()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EX) 다음 화를 보시라, 거동 보소, 하것다요

우선 주관적인 목소리가 느껴진다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은 작가 개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온 세상이 그를 반기는 듯하더라” 같은 구절이다.

이 구절이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면 작가 개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구름 모이듯 모였다는 단순히 묘사적 서술로 보는 것이 좋다.

CF)

주관적인 판단과 감상은 선경후정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경후정에서는 주관적인 판단과 감상이 명확하더라도 이것이 묘사적인 부분과 섞이면 선경으로 보는 설명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항조가에서 “정답게 노는데” 같은 구절이다.

만약 소설에서 정답테라로 끝나고 그것이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면 서술자의 가치판단이 드러난

주관적 감상으로 보고 작가개입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답>

-빈칸

주관성의 노출, 드러나지 않은 서술자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며, 1인칭, 해설 평가 일반화 자의식적 서술, 인물의 성격에 대한 단정적인 서술 당위 원칙 추측+ 회상, 장관이더라 심봉사 그러면 안되니라, 어찌. 감경, 차설, 말걸기 & 판소리계 문체, 단순한 사건 서술과 인물의 내면 서술

-OX

X-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있기는 하나 인물에 대한 호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놈이라고 주관적 평가를 노출한 부분이 나 명랑하다고 한 부분한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호감보다는 비호감과 연결된다.

O- “독자는 ~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있기에 이를 통해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점순이 염파가 말했다는 것을 다시 말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O- 독자를 언급하고 그에게 말을 건넬으로써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x-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o- 경기 강화라는 행선지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솔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양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A][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나)

서산에 돋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B][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㉔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큰 독해:

(가) 화자는 현재 봄날에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농사 지을 지도 쥐가 먹은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화자는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살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 귀신을 전송하고 하고 있지만 이 귀신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화자는 이를 받아들이며 빈천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 화자는 농촌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해가 뜬 상황에서 풀은 우거졌고,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면화는 잘 피었고 이른 벼에는 이삭이 패었다. 이러한 농촌의 상황에서 화자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술을 먹으며 흥겨움을 표현한다.

표현상의 특징:

(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대구법, 설의법, 의인법

(나)

의문형 종결, 시간의 경과, 의인법, 대구법, 정서의 직접제시

+ 고전 서정의 기본 어휘력-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다

지지하다: 더더게 흘러

동린: 동쪽의 이웃

선사: 서쪽의 집 서쪽의 관청

부치다: 심다

한아: 차갑고 굶주린

궁: 가난하다

후량: 바른 양식 제사용

희로우락: 즐거움과 노여움 근심과 즐거움

패다: 곡식의 이삭 따위가 나오다, 패다는 의미는 이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패는 이삭 뽑기는 잘 진행되는 일을 성급하게 해서 망치는 것을 말한다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1) X

: 계절의 변화가 등장하지 않으며, 여러 자연물을 활용한 인식 변화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화자의 인식 변화는 드러나 있다.

2) X

: 배귀기와 춘일에서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런 대상들을 대등하게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3) X

: 봄이라는 계절은 드러나 있지만 이 계절의 풍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이를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4) O

: 춘일과 배귀기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인 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가난한 화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5) X

: 계절적 순환도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다래 네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이내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1) O

: 술에 후량 즉 음식을 갖추고 좋은 날 좋은 때에 가라고 진송하는 것은 의례에 따라 궁귀를 떠내보내고자 하며 예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O

: 오유월이 가고 칠월이 반이라도라고 했기에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풍성하게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3) O

: 설의적 표현을 통해서 이내 궁을 수용하는 운명적 태도를 보여주며 하늘이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도 운명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4) O

: 가난 귀신을 보내고자 하다가 수용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칠월이 반이로다에서 버가 패어 곧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대감의 영탄적 표현도 적절하다.

5) X

: 초월적 존재는 인간 세계를 넘어선 존재 쉽게 신이나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하늘과 하늘은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것은 아니며 B에서도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예찬을 확인할 수는 없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뻔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밥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1) 0

: 파종할 뻔씨를 쥐가 반 넘게 먹은 상황으로 보기에 따르면 가난한 향촌 사대부로서 농사를 지어서 식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제시한다.

2) 0

: 곡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해 녹이 슬어 붉은 빛이 보이는 상황으로 궁핍함을 부각한다.

3) X

: 문학 문제의 기본인 내용일치에서 적절하지 않다,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은 없으며 그로 인한 죄책감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4) 0

: 정해진 순서와 약속대로 풀매기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방도로 보는 것이다.

5) 0

: 밥과 술을 즐기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이다.

	화법	작문
문제 맞춤 독해	서술상의 특징 - 예고 - 요약 - 질문 - 멀티미디어의 사용 - 전문가 의견 인용 이해 심화 새로운 질문 - 개인 경험 배경지식 - 추가 궁금증 - 비판과 신뢰도 확인	초고반영 고쳐쓰기 - 연결어 - 보기의 기준 자료의 특징 - 추세 - 비율
실제 문제 풀이	단락별로 읽으며 서술상의 특징과 내용 일치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를 읽으면서 풀기	

화법과 작문은 쉽다.

독서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소재와 내용이 등장한다.

또한 문제가 반복된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 역시 반복되기에 이에 맞춰서 빠르게 읽고 풀면 된다.

반복되는 문제는

- ① 서술상의 특징과 초고 반영
 - ② 듣고 나서 이해를 심화하고 새로운 질문을 가지는 문제
 - ④ 기존의 내용을 고쳐쓰는 문제
 - ⑤ 자료를 활용해 보완하는 문제
- 정도로 나뉘볼 수 있다

각각의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예고/ 요약/ 인용/ 멀티미디어의 사용/ 질문
- ②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 추가 궁금증/ 비판과 출처 신뢰도
- ③ 보기 등의 기준에 맞춘 고쳐쓰기/ 연결어
- ④ 시계열- 추세/ 원형 그래프- 비율

독해는 선지에 등장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락별로 글을 읽어 가면서

서술상의 특징이나 초고 반영 등의 내용 일치 문제를 바로 바로 풀고

이후에 다른 문제를 풀면 된다

문제를 풀면서 예상 독자 등

독해 시 집중할 부분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입니다. 석류탕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석류탕은 꿩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잣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낸 음식입니다.

(화면을 넘기고) 이 사진은 '난면'입니다.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난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 낸 다음 꿩고기를 삶은 국물에 그 면을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 ②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 ④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언급한 책의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 + 내용일치 문제로 이 것을 제일 먼저 풀거나 36번을 제일 먼저 풀면 된다.

1) X

: 석류탕과 난면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리하는 것인지 서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2) X

: 소개한 두 음식을 말고 다른 음식에도 관심이 있다면 책을 보라고 했기에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한다는 서술은 거짓이다

3) X

: 석류탕과 난면의 조리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리법을 활용한 다른 음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O

: 얼마전 읽은 책에서 17세기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해서 발표 주제를 선정했다고 이야기했기에 참이라고 할

수 있다

5) X

: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가 등장하지 않는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 분석>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 발표 장소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임.....㉡
- 청중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임.....㉢
-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거임.....㉣

<실행 계획>

-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의 순서나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음.....㉤

① ㉠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② ㉡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해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③ ㉢ :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힌다.

④ ㉣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한다.

⑤ ㉤ : 청중과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1) 0

: 석류탕과 난면을 포함한 음식을 다루는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2) 0

: 2문단에서 멀티미디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0

: 처음에 음식디미방을 아는 사람을 확인하는 서술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1670년경이라는 집필 시기와 책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4) 0

: 난면을 말할 때 익숙한 계란과 냉면을 활용해서 서술하고 있다.

5) X

: 처음에 석류탕과 난면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으며 그에 맞춰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 석류탕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꿩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학생 2 :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학생 3 :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1) X

: 학생 1은 추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생 2의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자신이 아는 것 즉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 X

: 학생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해서 듣고 있는 것은 맞으나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다.

3) X

: 두 번째 소개 음식은 난면이고 학생 2의 배경지식과 기존 경험은 석류탕이다.

4) O

: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추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두 발표자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다

5) X

: 학생 3의 사전 경험은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둘 다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면서 듣고 있지 않다.

(가)는 한 학생이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니다. 토론 한마당을 담당하는 학생회 운영진에게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회가 진행해 온 토론 한마당은 예선과 본선에서 항상 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팀이 늘면서 예선을 위한 시간과 공간 부족, 예선을 운영할 인원과 심사자 확보 곤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회도 알다시피 작년 행사 이후 학교 신문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토론 한마당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76%로 매우 높았습니다. 불만의 원인은 예선 참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선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현행의 평가 방법인 대면 토론을 유지하려면 예선 기간이 짧아 참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대면 토론 외의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와 학생 수도 거의 같고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인근 학교 중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다가 예선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서는 대면 토론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 토론 대신 예선에서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한마당 예선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행의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불만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더 높아져 토론 한마당이 학생 자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학생 1 : 토론 한마당 행사의 예선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지? 기간 연장은 일정상 당장 반영하기 곤란하니 참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자.

학생 2 : 응. 예선 참가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다 보니, 토론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불만이 많다는 건데, 예선 방식을 바꿔야 되겠더라.

학생 1 : 행사 운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심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면 토론을 유지하다 보니 참가 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불만이 많아진 거니까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학생 2 : 그러면 토론 개요서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 글에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 논제에 대한 입장과 근거가 담긴 토론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선을 치르는 거야.

학생 3 : 동영상상을 활용해 보는 건 어때? 참가 신청한 팀들 중 두 팀씩 서로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게 하는 거야.//

학생 1 : 두 가지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달라 보이는데, 각각의 방안이 가지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학생 2 :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면 현행 방식일 때 예선에 참가하지 못할 학생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덜 받고, 대면 토론을 운영할 인원이나 심사자를 섭외하는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어.

학생 3 : 동영상상을 제출하도록 하면 대면 토론과 달리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토론 개요서를 평가할 때와 달리 참가자들이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토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학생 1 : 두 방식의 단점이나 운영상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

학생 2 :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참가 팀들이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해서 번거로워. 또 토론 개요서와 다르게 대면 토론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많은 팀이 참가한다면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클 것 같네.

학생 3 : ㉠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 부담은 큰 게 맞겠네. 그런데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긴 어려워.

학생 2 : ㉡ 그래도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논증 능력이니깐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학생 3 :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학생 1 : 나도 좋아. 토론 개요서를 평가하면 예선 참가 가능한 인원이 늘겠지. 그러면 게시판의 글에서 말한 학생들 불만이 해소될 거야. 모두들 동의했으니 이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는 마무리하자.

38. (가)의 작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 ②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글의 주제로 삼았다.
- ③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성찰하는 것을 작문 목적으로 설정했다.
- ④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기록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선택했다.
- ⑤ 공동체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형식을 갖춘 글의 유형을 선택했다.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좋다.

1) 0

: 문단을 읽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예선 참가 방식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바꿀 수 있는 학생회 임원을 예상독자로 설정했다.

2) X

: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3) X

: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도 이를 성찰하는 것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이다.

4) X

: 공동체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으며 경어 사용과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X

: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분석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형식의 글을 쓰고 있지는 않다.

39.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를 제시했는가?
- ㉡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했는가?
- ㉢ 문제의 원인을 제시했는가?
- ㉣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제시했는가?
- ㉤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가?

- ① 2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 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을 충족하는군.
- ② 3문단에서 토론 한마당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은,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③ 3문단에서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자 제한을 학생들이 불만족한 원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④ 4문단에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언급한 내용은,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통해 기간 연장 및 평가 방법 변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⑤ 5문단에서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 개선이 가져올 결과를 언급한 내용은,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1) X

: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팀을 제한한 것이 현재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임시적인 해결책도 불만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문단의 문제는 참가팀의 제한이라는 문제적 해결책이 나온 배경이다.

: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참가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존의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 0

: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b를 충족한다.

3) 0

: 3문단 마지막에서 현재의 불만족의 원인을 참가 인원의 제한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c를 확인할 수 있다.

4) 0

: 참가인원을 늘리는 다른 학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해결책의 실행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를 확인할 수 있다.

5) 0

: 불만 해소와 대푯 행사로의 자리매김을 언급하면서 기대 효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를 확인할 수 있다.

40. (나)의 '학생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을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② (가)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가)에서 현행 예선 평가 방법의 장점으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언에서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서술한 현행 예선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을 언급하며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1) 0

: 학생은 사회자처럼 논의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제일 처음 발언에서 게시판 글을 통해서 논의의 계기를 말하고 있다.

2) 0

: 두 번째 발언에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과 이로 인해서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3) X

: 가에서는 대면토론의 시간을 늘리거나 토론 개요서를 통해서 토론 참여 팀을 찾고자 했는데 나에서는 대면토론의 형식이 야기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촬영이나 토론개요서 등 이를 대체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두 방법의 장단점을 말하고 있다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4) 0

: 촬영과 토론개요서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현행 토론 방식의 장점인 현장감은 제외하자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5) 0

: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제시하며 현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41. ㉠, ㉡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 직전의 '학생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 ② ㉠은 ㉠ 직전의 '학생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 ③ ㉠은 ㉠ 직전의 '학생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한다.
- ④ ㉡은 ㉡ 직전의 '학생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덧붙이면서 공감을 드러낸다.
- ⑤ ㉡은 ㉡ 직전의 '학생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핵심을 재진술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 동의를 유보한다.

㉠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 부담은 큰 게 맞겠네. 그런데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긴 어려워.

㉔ 그래도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논증 능력이니까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1) 0

: 촬영의 단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론 개요성의 단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서 발언한다.

2) X

: 일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X

: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라는 선술은 적절하지 않다.

4) X

: 학생 3이 제시한 토론개요서의 단점에 대응하여 토론 개요서가 가지는 의의와 장점을 선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X

: 학생 3의 의견의 핵심을 재진술하고 있지 않다.

42. (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인식 및 대안 생성 → ㉔대안에 대한 검토 → 최선의 대안 선택

①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참가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②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대면 토론에 비해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③ 동영상 방식의 단점으로, 참가자가 별도의 촬영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④ 토론 개요서 방식의 장점으로, 현행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생이 예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⑤ 토론 개요서 방식의 단점으로, 참가자들의 소통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1) 0

2) X

: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동영상 촬영의 방식의 단점으로는 심사자의 부담이 토론 개요서 등의 방법에 비해 커질 수 있음이 제시된다.

3) 0

4) 0

5) 0

다음은 '건강상식' 잡지의 편집장이 보낸 요청과 그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기획 연재 '다양한 직업 세계의 직업병' 제2회 원고와 관련하여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 질환의 개념, ㉡ 질환의 유병률, ㉢ 질환 완화 방법을 포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초고>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기군별로 보면, 다른 악기 연주자들보다 건반 악기 연주자들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피아니스트 ○○○ 씨는 오랜 시간 건반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심하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주변의 건반 악기 연주자들도 흔히 겪는 질환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부위별 유병률을 보면 목, 어깨, 팔꿈치, 손목과 같은 상지 부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부위별로 구체적인 유병률은 악기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악기군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부위 유병률 순위와 부위별 유병률 순위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악기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습 중 휴식, 운동, 연주 자세, 연주 기간 등이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악기 연주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연습 중의 규칙적인 휴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43. 초고에서 ㉠~㉢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질환의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 ② ㉡ : 두 범주를 설정하여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 ③ ㉢ : 악기 연주자의 질환 경험 사례를 악기군별로 제시했다.
- ④ ㉣ : 질환 완화 방법을 질환의 부위별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 ⑤ ㉤ : 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초고 반영과 이를 통한 내용일치의 문제이기에 이것부터 푸는 것이 좋다.

1) X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2) O

: 2문단에서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3) X

: 악기 연주자의 질환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악기군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X

: 질환 완화 방법을 제시하나 질환의 부위별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5) X

: 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나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다음은 초고를 쓴 기자가 잡지 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에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유사한 동작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 ①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이유 추가
- ②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조건 추가
- ③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부위 추가
- ④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유형 추가
- ⑤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 추가

사무직을 제외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반복적 작업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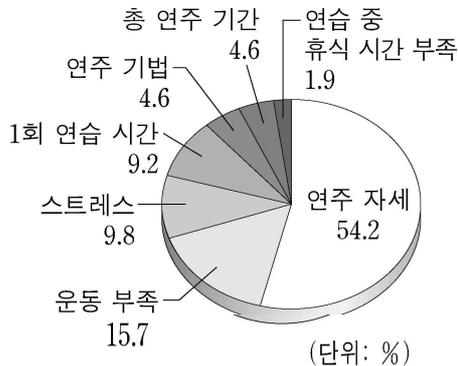
답은 쉽게 5번이다.

45.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 의학회 논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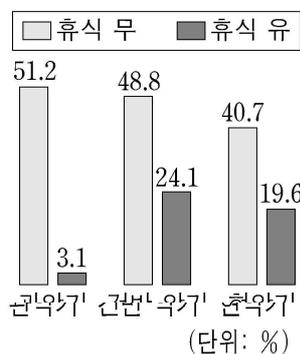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는 57.6%, 건반 악기는 75.0%, 현악기는 68.1%로 나타났다. 통증 부위에 따른 유병률은 상지 부위의 경우,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7배였고, 하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로 나타났다.

(나-1)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

(나-2)



<연습 중 휴식 유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연주 자세가 제일 주요한 원인이며 운동과 스트레스 등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

실제 휴식이 큰 영향을 미침

추론하자면 휴식을 중요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추론가능

시계열 자료가 아니기에 추론은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됨

(다) ◇◇ 대학교 의대 교수 인터뷰 자료

“스트레칭 운동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화 운동을 통해 바른 자세로 교정하면 근골격계에 도움이 됩니다.”

① (가)를 활용하여, 악기군별 상지 부위의 유병률 차이에 대해, 건반 악기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악기, 관악기 순이라는 내용으로 2문단을 구체화한다.

② (가)를 활용하여,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해, 상지 부위와 달리 하지 부위의 유병률은 전체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보강한다.

③ (나-1)을 활용하여,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④ (나-2)를 활용하여, 연습 중 휴식이 악기군별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악기의 경우가 현악기보다 유병률을 낮추는 데 휴식의 영향이 더 크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⑤ (다)를 활용하여,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근골격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3문단을 보강한다.

1) 0

: 악기군별로는 건반 악기 현악기 관악기 순이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다. 관악기를 연주하면 상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건반 악기 현악기 관악기 순이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악기군별 유병률이나 상지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다.

2) 0

: 하지의 경우에는 건반악기 관악기 현악기순으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전체 순위와는 다르며 2문단에 전체 부위와 특정 부위의 유병률 순위 차이가 있다는 본문 내용을 구체화한다.

3) X

: 나-1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자료이다

4) 0

: 휴식이 중요한 해결책임이 드러나며 그 효과로 관악기의 경우 유병률이 48퍼센트포인트 가량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휴식이 현악기보다 관악기에서 유병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문을 구체화 할 수 있다

5) 0

: 스트레칭과 안정화 운동을 제시했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효과를 알 수 있다.

같이 보자! 2X2 매트릭스

이건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하다

성적을 정리할 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고 2 고 3 같은 학년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다.

정보의 다양한 분류를 하나로 묶어서 나눌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념이 2X2 매트릭스이다

좌수의 델타나 조건부 확률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등장했던 개념이다

① 수량과 비율의 구분

② 비율 일 때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기본적인 내용일치를 쉽게 풀 수 있다.

만약 총 200명 중에서 각 유병자의 수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진반 약기	현약기	타약기	
상지	40	15	5	60
하지	5	3	3	10
허리	5	17	8	15
	50	35	15	

진반약기의 유병률은 25퍼센트로 현약기의 17.5퍼센트와 타약기의 7.5퍼센트보다

7.5퍼센트포인트 17.5퍼센트포인트가 높다

진반 약기 유병자 중 상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80퍼센트정도이며

진반 약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0퍼센트이고

이는 $40/50 * 50/200$ 이다

그녀가 밥을 먹은 이유가 뭘까?

	언어	매체
핵심 개념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화법과 작문과 유사하게 문제에 맞춘 개념이 필요 ① 서술상의 특징/ 내용일치 ② 이후탐구 ③ 고쳐쓰기 ④ 매체 활용
실전 문제 풀이	조사접사어미 등의 특수한 조건 새로운 내용만 읽고 바로 풀기	같이 풀 문제를 확인하고 단락/ 대화별로 읽어가며 읽으면서 풀기

언어와 매체 지문의 경우에는 배경지식이 핵심이다
물론 지문형 문법 문제가 자주 등장하면서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사전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음운 형태 통사를 중심으로
의미와 화용을 약간 추가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 보기를 읽을 때는
- ① 자음과 모음 등의 음운론적 환경
 - ② 특정한 조사 어미 조사 등의 형태론적 환경
 - ③ 모르는 새로운 문법 내용
- 만 빠르게 파악하면서 읽으면 된다.

근간이 되는 암기 지식의 경우 문학개념어와 동일하게 학습하면 된다.
문법 역시 관점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학교 문법 수준에서 좁은 기준점을 만들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은 기억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p>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의 비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일한 대상 & 생략 여부(이게 핵심) ② 빼도 말이 되는가 ③ 의미상 동격이 성립 즉 의미상 그 내용 <p>예) 내가 매우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일은x 일을x 일에△/ 말이 되지 않음/일의 내용- 동격 관형절 예) 내가 말한 소문이 기억나니? 소문을O- 관계 관형절 예) 그가 돌아 왔다는 소문이 기억나니? 소문은X 소문을X 소문에△/말이 되지 않음 /소문의 내용- 동격 관형절(고 하는)</p>	<p>관형절을 관계 동격 연계로 나누는 것 기억 연계 관형절은 동격 관형절과 ① ②까지는 동일하지만 ③에서 차이가 발생 예) 밥을 먹은 후에 ,밥을 먹는 대신에 연계절은 동격보다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가 더 제한적 이유와 방법의 경우에는 동격으로 우선 넣기, 국어에서는 the reason why the way that과는 달리 굳이 그 이유 그 방법보다는 동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음, 영어에서도 the reason that에서 동격인지 관계부사인지 논쟁</p>
---	--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파생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파생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가 중세국어에서 명사 파생접사 부사 파생접사로 쓰였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만 하는 데 쓰이는 도구나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을 통해서 추가로 파악하면 된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너빅(넙- + -의)도 ㄱ티히고 [넓이도 같이 하고]
노피(높- + -이) 다솻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여기서도 부정명사 뒤에서나 존칭의 유정명사 뒤에서 관형격 조사 ㅅ 평칭의 유정명사 뒤에서 관형격 조사 의 등의 기본개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버미(범 + 의) 뼈나 [범의 뼈나]
사르 미 (사름 + 이) 무레 [사람의 무리에]

무퓌(물 + 의) 든니는 [물에 다니는]
바미(밤 + 이) 나디 아니흐느니[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릭'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1) X

: 연필꽃이처럼 책꽃이도 책을 꽃는데 쓰이는 도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X

: 현대 국어의 늘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이며 중세 국어의 사리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3) X

: 중세국어에서 의는 명사파생접사로는 사용되었지만 부사파생접사의 의미는 갖지 못했다. 따라서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X

: 글에서 의는 접사로 쓰일 때 부사로는 파생되지 않고 명사로 파생된다고 했다. 따라서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비문학 글에서 주의할 내용일치 중 하나는 이다, 일 수 있다, 만 한다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 즉 개념 간의 포함관계를 묻는 것이다. 위 글에서는 접사 이가 두 가지 품사로만 파생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실제 이의 사동의 접미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O

: 중세국어에서는 조사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 체언은 관형어나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버미, 무퇴'가 그 예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쓰리 일후믄 [딸의 이름은]
- ㉡ 글지시에 위두흐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曲江스구빅에 7마니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王스겨틱 안젯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 ① ㉠에서 '쓰리'의 '이'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이군.
- ②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구빅'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겨틱'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이군.

1) O

: 딸+ 평칭의 관형격 조사이기에 모음 조화에 맞춰 의가 등장한다.

2) O

: 글짓기의 이는 접사이다. 글에 따르면 이는 양성모음도 음성모음도 아니기에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하며 이때는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는 명사 파생 접사이다.

3) 0

: 여기서는 발-에 복사파생접사가 붙은 것이고 이는 양성 모음도 음성 모음도 아니기에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다.

4) X

: 굵-에 의가 붙은 것인데 이때 파생된 어휘가 굵이 즉 명사로 이는 명사 파생접사로 봐야하고 모음조화의 측면에서는 음성모음 뒤이기에 의가 붙은 것이다

5) 0

: 결이라는 체언 뒤에 붙은 조사로 장소를 나타내며 복사격 조사가 붙은 것이다, 모음 조화의 측면에서는 음성 모음 뒤이기에 의가 붙은 것이다.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솜이는 집에 있고.

영이 :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 그러자. 그럼 오늘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1) X

: ㄱ은 민수와 영이를 ㄴ은 영이와 영이의 강아지 별이를 말한다

2) 0

: ㄴ은 영이와 영이의 강아지 별이를 말하고 ㄹ은 영이 별이 민수를 의미한다

3) X

: ㄷ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이고 ㄹ은 민수 영이 영이의 강아지 별이다

4) X

: ㄹ은 민수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이고 ㄹ은 영이 영이의 강아지 봄이 민수이다

5) X

: ㄹ은 민수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이고 ㄹ은 민수 영이 영이의 강아지 봄이이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1) 2자리

: 서술어의 자리수는 주어를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장성분을 남기면 된다. 유리하다는 어디에 유리하다는 것은 남아야 한다 따라서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 두 개가 필수 성분이 된다. 물론 부사어 자체는 필수 성분을

2) 2자리

: 떠난다는 표현에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이다.

3) 2자리

: 짓는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이다.

4) 1자리

: 걸었다는 것은 주어를 필수적 문장성분으로 한다, 다만 길을 걸었다처럼 의미에 따라서 목적어까지 필수 성분으로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5) 3자리

: 보냈다는 표현은 무엇을 어디에 보냈는지 즉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이와 같은 세 자리 서술어의 경우에는 주다 놓다 삼다 등이 대표적이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 ’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ㅏ, ㅑ, ㅓ, ㅕ,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갬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썬었다'는 각각 '꽈'와 '썬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별이) 쏘-'에 '-이-'가 붙은 '(별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썰'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1) 0

: 우선 준 대로 적는 다고 했기에 선지에 나온 형태 대로 줄어들 수 있다. 선지도 그럴 수 있다라는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2) 0

: 모음 ㄴ ㄷ 로 끝난 어간이 맞고 뒤에 어미 아 ㄷ이 결합했기에 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줄 수 있다.

3) 0

: ㄹ의 내용에서 볼 때는 어간 아에 어미 이가 온 것으로 채로 줄고 여기어 았다가 결합한 채었다가 가능하다. 만약 ㄹ을 먼저 진행했을 때는 다르게 줄 수도 있다.

4) 0

: 우선 ㄹ을 적용하고 ㄷ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ㅅ로 줄어 들고 여기에 어가 붙는데 이때 ㄷ에 의해서 ㅅ해가 될 수 있다.

5) X

: 우선 ㄹ을 적용하고 ㄹ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ㄴ으로 줄어 들고 여기에 어가 붙는 것으로 ㄴ어가 되어야 한다 만약 ㄹ부터로 순서가 바뀌면 ㄴ어가 되어야 한다.

같이 보자! 관계절

관계절은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로 나눌 수가 있다.

긴 관형절은 쉽게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며

쉽게 고 하는 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이 긴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일부가 동격관형절과 연결되고

관계 관형절은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 등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인 짧은 관형절이 된다.

관계 관형절: 수식의 대상이 관형절 내에서도 반복. 이때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다만 필수적 부사어 아닌 부사어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녀가 밥을 먹던 방에서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때 그러하다. ㄷ이런 대상의 경우에는 떠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즉 공간 같은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나 수식의 대상인 방과 관형절이 관계를 맺고 있기에 관계 관형절로 볼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의 경우에는 그 부품을 배 놓아도 문제가 없다. 부사어는 주로 관형절 안에서 '~에'로 해석되며 장소와 시간이 등장한다.

동격 관형절(보문절): 수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가 아님/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의미상 동격 즉 수식 대상인 명사구의 내용이 같음

동격 관형절의 경우에는 영어의 동격의 태도를 생각하면 편한데 의미를 더해주는 대상이 관형절 안에서 문장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가늠에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의미를 더해주는 명사는 일 사실 소문 등으로 제한적이다.

영어에서도 the reason that의 that을 관형사절로 볼지 동격의 that으로 볼지 의견이 나뉜다. 선행 명사의 수식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합당하지만 that이후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기 때문이다. 국어에서는 그 이유 그 방법과 방식으로 선행명사를 수식한다고 보지 않기에 동격 관형절로 정리해두자

연계절: 수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가 아님//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의미상 동격이라고 하기에 어렵// 다음 대신 후 등의 제한적인 수식 대상의 등장

연계절은 동격 관형절의 특징인 관형절과 의미를 더해주는 명사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격 관형절의 일부로 설명하는 경우와 아예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의미를 더하거나 수식하는 명사가 관형절에서 사용되는가 즉 공동의 명사가 존재하고 이것이 생략되는가

관형절이 문장 성분이 완전한 문장인가

관형절과 앞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수식하는 대상이 의미상 동격인가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 핵심이자 원칙은 첫 번째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으로 정리해두자

같이 보자! 의존명사와 조사의 띄어쓰기

여기서는 의존명사와 조사의 띄어쓰기의 원칙만 정리해두자!

'용언의 활용형'(관형어)+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으면) 의존명사

그렇지 않으면 어미로 읽기

ex) 듯- 주로 듯이의 준말 듯이는 어미도 의존명사도 가능하다

갈 듯 말 듯

죽을 듯하다

본 듯

보듯